



## 청년이 바라보는 협동운동 조사 및 결과분석 보고서

설문진행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모심과살림연구소



본 설문은  
(사)모심과살림연구소의 의뢰와 지원으로  
대학생협연합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요약문

## 경제생활 관련

이번 설문에 응답한 1,634명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로 월평균 40만원(53.7%)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되는 비용으로는 식비(57.2%)를 응답하였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63.5%에 해당하고, 소득활동 외에 부모 등 가정에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4.6%)

응답자 중 20.6%는 본인 명의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의 큰 원인은 등록금(44.8%), 생활비(35.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5.5%는 저축을 하고 있으며 저축 금액은 20만원 미만(4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에서 식비를 가장 아까워해**

**#노동소득으로는 저축은 물론 생활비도 어려워**

**#개인 부채의 원인은 등록금과 생활비**

## 식생활 관련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맛'(50.6%)과 '가격'(31.3%)으로 나타났다.

식사 형태로는 식당을 찾는 응답자가 48.9%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직접 조리(35.8%) 보다는 배달이나 패스트푸드 등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는 것(64.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1%는 하루에 2회 정도의 식사를 하고 있으며 거의 매끼를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11.9%로 보여졌다.

응답자들이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매장은 대형마트(40.8%)와 슈퍼마켓(29.3%)이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구입하는 식자재는 즉석식품과 간편식(43.9%),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야채 및 고기, 유제품, 계란 등 원재료(36.8%)로 응답되었다.

**#사 먹거나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사 선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 하루 세끼 섭취 빈도가 높아**

**#즉석식품 / 간편식 구매를 선호하며 주로 대형마트를 찾아**

## 주거 관련

응답자의 절반(55.7%) 이상이 월 주거에 20~4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며, 기숙사 또는 하숙이 33.7%, 자취가 28.6%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선호도가 54.5%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44.2%)나 지인, 친척, 형제자매가 함께 자취하는 경우(46.6%)에도 1인 가구의 선호가 가장 높았다.

**#함께 살고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 대학 생활 관련

응답자들은 수업과 연구의 질(20.6%), 학비 부담의 문제(19.6%)를 대학 생활의 큰 문제로 꼽았다. 국공립과 사립을 비교해도 수업의 연구와 질 문제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대학 상업화 문제와 학비 부담 문제는 사립 대학쪽이 높게 나타나고, 시설 노후화나 복지시설 부족, 취업 및 진로지원 미흡 문제는 국공립대학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 본인이 대학 운영의 주체로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요소(29.5%)와 부정요소(23.2%)가 비슷하게 응답되었다.

대학생협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2.0%로 대학생협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학생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6.4%로 나타났다.

**#등록금과 수업의 질, 가성비는 괜찮을까?**

**#대학의 운영 주체로서의 인정은 찬반이 유사**

**#대학생협은 대학생활에 큰 도움은 되는 것으로 나타나**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관련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일자리 문제(47.2%)에 관심이 많았다.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는 SNS를 통한 참여(34.1%)와 오프라인 모임 및 동아리 활동(9.9%)이 응답되었지만, 별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40.7%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47.4%, 사회적 경제는 35.0%로 응답되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는 공동체 운동 단체(43.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으며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는 먹거리 및 농업 부분(36.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협을 경험하고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경험자가 미경험자

보다 긍정응답이 24.5% 많게 응답되었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경험자의 긍정 응답이 미경험자 보다 13.3% 높게 응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는 일자리 문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좋지만 잘 알고 있지는 못함**

**#협동조합은 지인과 조합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는 수업과 강연으로 확산**

**#협동조합의 이미지는 공동체 운동 단체로 / 대학생협 외엔 잘 몰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먹거리와 교육에 관심 있어**

**#대학생협을 경험한 경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 높아**

## 경제적 가치 관련

응답자들이 근로 선호 조직은 정부기관 및 공사, 공단으로 (37.3%)과 민간 기업(30.8%)의 비율이 높았다.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53.7%)와 현행과 같은 8시간의 노동시간(57.8%)에 대한 도 보여졌다.

조직의 가치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워라벨의 선호도가 높았고(67.7%) 진로와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안정적 소득 추구가 49.4%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가장 기피하고 싶은 근로 조건으로 또한 낮은 급여(33.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직된 조직문화와 업무강도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영역으로의 취, 창업의 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15% 미만으로(사회적경제 14.7%, 협동조합 13.5%) 높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의 두 축은 취업정보 부족(18.8%)과 낮은 급여(11.8%)로 응답되었다.

**#안정적이며 유연한 근로 형태를 원해**

**#근로환경에서도 중요한 워라벨과 안정적인 소득**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취·창업은 어려운 고민**

# 청년이 바라보는 협동운동을 위해

## 1) 청년대학생들에게 보다 친근한 먹거리로 접근

대학생들의 생활영역에서 한살림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식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다. 한살림운동이 생명운동과 밥상살림운동에서 시작되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 온 만큼,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대학생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앞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현재 대학생들은 대부분 혼자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생활을 지향하고, 간편식이나 반조리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로 '먹거리 및 농업(36.4%)'을 선택한 만큼,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여 청년대학생들에게 어필하고, 기획 과정에서 청년대학생들 함께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먹거리로서, 제품으로서 매력있는 한살림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생명운동의 지속성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해 보는 것이다.

또한, 상시가 아니더라도 한달에 한번 혹은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한살림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만든 식단을 제공하며 한살림이란 브랜드가 노출되고,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무단위에서의 협업을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 ▶ 대학생들에게 보다 친근한 간편식이나 반조리 상품 개발
- ▶ 1달 1회, 특별한 날 지정하여 대학 내에 한살림 먹거리 제공

## 2) 가치로서의 점점 확대

**대학생협의  
콩세알 프로젝트는**

학생, 교수, 직원들이  
대학생협을 통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품목의 수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여

"우리는 대학 내에서 경쟁이 아닌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생협 학생지원팀  
(대학생협연합회 콩세알 프로젝트팀 활동가)

대학생협에서는 사회기여 프로젝트로서 ‘콩세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콩세알 프로젝트는 대학생협 매장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콩세알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대학 내 생활 개선 또는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현재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꾸러미 지원 사업’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밥 한끼를 포기하는 대학생을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주 2회마다 식료품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살림에서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먹을거리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식생활 지원의 측면에서 대학생협과 함께 공동의 사업을 구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살림의 특성이라면 생산자와의 연계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살려 대학생협의 조합원과 한살림의 생산자 연합의 연계 활동으로 ‘농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다. 한살림의 생산자모임과 대학생협 조합원들 간 농업이라는 접점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만나 교류하고, 식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 ▶ 대학생협 사회기여 프로젝트  
‘꾸러미’와 한살림의 ‘먹을거리 돌봄’사업 연계
- ▶ 대학생협과 생산자모임의 연계: 농활프로그램 진행

### 3) 매력적인 조직으로서의 교육과 홍보

대학생들이 생협을 알게 되거나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는 것은 주로 지인이나 친구, 학교 내 강의 등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한 뒤에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는 활동가들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간 협동조합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대학에 와서야 비로서 대학생협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나마 대학생협도 전국에 34개 대학에만 운영되고 있다.

최근 중고교에도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생협에서도 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해 강의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과 더불어 학교협동조합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살림에서는 조합원들의 자녀들 중 중고교생, 대학생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와 교육을 제공하였으면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협동조합으로의 활동과 대학생협에서의 활동 등에 참여가 확산된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의 생태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살림이 대학생협 학생조합원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예컨대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영역과 지역에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활동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일터로써 보다 안정적인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청년들의 노동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한살림만의 매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먼저 찾고 싶은 곳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 ▶ 청년활동가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 확대
- ▶ 한살림만의 매력있는 조직문화 만들기

# 목 차

설문조사 진행 개요	15
설문 응답자 기본 정보	21
경제생활 관련	25
#생활비에서 식비를 가장 아까워해	26
#노동소득으로는 저축은 물론 생활비도 어려워	28
#개인 부채의 원인은 등록금과 생활비	31
식생활 관련	35
#사 먹거나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사 선호	36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 하루 세끼 섭취 빈도가 높아	38
#즉석식품 / 간편식 구매를 선호하며 주로 대형마트를 찾아	40
주거 관련	43
#함께 살고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44
대학생활 관련	49
#등록금과 수업의 질, 가성비는 괜찮을까?	50
#대학의 운영 주체로서의 인정은 찬반이 유사	52
#대학생협은 대학생활에 큰 도움은 되는 것으로 나타나	53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57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는 일자리 문제	58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좋지만 잘 알고 있지는 못함	61
#협동조합은 지인과 조합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는 수업과 강연으로 확산	63
#협동조합의 이미지는 공동체 운동 단체로 / 대학생협 외엔 잘 몰라	65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먹거리와 교육에 관심 있어	67
#대학생협을 경험한 경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 높아	69
경제적 가치 관련	71
#안정적이며 유연한 근로 형태를 원해	72
#근로환경에서도 중요한 워라벨과 안정적인 소득	74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취창업은 어려운 고민	76
설문 문항 소개	79

# 표 목차

표.01	권역별 응답자 비율	23
표.02	응답자 성비율	23
표.03	연령별 응답자 비율	23
표.04	월평균 주거비 지출은 얼마 정도입니까?(관리비 포함)	26
표.05	주거비를 제외한 월평균 생활비 (식비,교통비,통신비등)는 얼마입니까?	26
표.06	월별 생활비 지출에 있어 본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27
표.07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느정도 입니까?	29
표.08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월평균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29
표.09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30
표.10	설립 구분별 부채 원인 교차분석(국공립 기준)	31
표.11	소득활동 대비 부채 현황 교차분석(부채기준)	31
표.12	현재 본인 명의의 부채가 있는 경우,부채규모(금액)는 어느정도 입니까?	33
표.13	개인명의를 부채가 있다면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33
표.14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 형태는 무엇입니까?	37
표.15	식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37
표.16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 형태는 무엇입니까?-2	37
표.17	주거 형태별 일평균 식수 교차비교(거주형태기준)	39
표.18	주거 형태별 주평균 외식/편의점/배달음식 섭취 빈도 교차비교(거주형태기준)	39
표.19	주거 형태별 구입 식재료 빈도 교차비교(거주형태기준)	41

표.20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식료품은 무엇입니까?	41
표.21	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41
표.22	주거형태별 선호주거형태 빈도 교차비교(거주형태 기준)	45
표.23	현재 본인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46
표.24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생활형태는 무엇입니까?	46
표.25	현재 주거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46
표.26	주거형태별 선호주거형태 빈도 교차비교(거주형태 기준)	47
표.27	권역별/형태 별대 학문 제빈 도교 차 비교(권역/설립 형태 기준)	51
표.28	학생으로서 본인 이대 학운 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2
표.29	귀하는 대학생협을 알고 계신가요?	53
표.30	귀하는 대학생협이 학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53
표.31	귀하는 현재 대학생협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55
표.32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55
표.33	관심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평상시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59
표.34	연령별 관심 사회문제에 대한 교차분석(연령기준)	60
표.35	귀하께서는 협동조합을 알고 계신가요?	62
표.36	귀하께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62
표.37	귀하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2
표.38	귀하께서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2
표.39	어떤 경로를 통해 협동조합을 알게 되었나요?	64

표.40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었습니까?	64
표.41	귀하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66
표.42	가장 잘 알고 있거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협동조합은 어디인가요?	66
표.43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및 조직은 무엇입니까?	68
표.44	귀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68
표.45	대학생협 경험 그룹 협동조합 긍정/부정인식	70
표.46	대학생협 경험 그룹 사회적 경제 긍정/부정인식	70
표.47	어떤 형태의 조직에서 가장 일하고 싶습니까?	73
표.48	어떤 형태로 일하고 싶습니까?	73
표.49	하루에 적절한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73
표.50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가장 일하고 싶습니까?	75
표.51	진로·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75
표.52	진로·직업선택 시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75
표.53	취업 또는 설립(창업)등 협동조합으로 취업 및 진로를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77
표.54	취업 또는 설립(창업)등 사회적 경제 분야로 취업 및 진로를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77
표.55	사회적 경제분야로 진로·취업에 긍정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7
표.56	사회적 경제분야로 진로·취업에 부정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7

# 그래프 목차

그래프.01	권역별 응답자 비율	22
그래프.02	응답자 성별 비율	22
그래프.03	연령별 응답자 분포도	23
그래프.04	월평균 주거비 지출	26
그래프.05	주거비 제외 생활비 지출	27
그래프.06	생활비 중 부담요소	27
그래프.07	소득활동 여부	28
그래프.08	월평균 소득(아르바이트 등)	28
그래프.09	월 경제적 지원(가족으로부터)	29
그래프.10	저축 여부	30
그래프.11	월평균 저축액	30
그래프.12	부채 여부	31
그래프.13	개인 부채 원인	32
그래프.14	개인 부채 금액	32
그래프.15	선호하는 식사 형태	36
그래프.16	식사 선택 기준	36
그래프.17	식사 선택 기준-2	37
그래프.18	일 평균 식사 횟수	38
그래프.19	주당 외식/배달/편의점 음식 평균 섭취 빈도	38

그래프.20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식료품	40
그래프.21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40
그래프.22	선호 주거 형태	44
그래프.23	주거 스트레스 정도	44
그래프.24	현재 거주 형태	45
그래프.25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대학의 문제점	50
그래프.26	대학 운영의 주체 동의 정도	52
그래프.27	대학생협 인지 정도	53
그래프.28	대학생협 참여 정도	53
그래프.29	대학생협 참여 동기	53
그래프.30	대학생협 가치 공감 정도	53
그래프.31	가장 관심 있는 사회 문제(1~3위)	58
그래프.32	가장 관심 있는 사회 문제(4~6위)	59
그래프.33	관심 있는 사회 문제 참여 여부	59
그래프.34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인지 정도	61
그래프.3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동의 정도	61
그래프.36	협동조합 인지 경로	63
그래프.37	사회적 경제 인지 경로	63
그래프.38	협동조합 이미지	65
그래프.39	알고 있는 협동조합 종류	65

그래프.40	알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업 및 조직	67
그래프.41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	67
그래프.42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인식 차이(대학생협 경험 바탕)	69
그래프.43	선호 근로 조직 형태	72
그래프.44	선호 근로 형태	72
그래프.45	선호하는 조직 추구 가치	74
그래프.46	진로,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74
그래프.47	진로,직업 선택 시 기피 요인	75
그래프.48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로 진로,취업 의향 여부	76
그래프.49	사회적 경제 분야 진로, 취업 긍정 이유	76
그래프.50	사회적 경제 분야 진로, 취업 부정 이유	77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

## 설문조사 진행 개요



## 【설문 조사 진행 개요】

### ‘청년이 바라보는 협동운동’ 설문조사 및 분석

#### #연구용역 취지

생협 1세대들과 1.5세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치열하게 극복하고자했던 시대적 과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성장의 신화’를 낳았던 생협이 ‘저성장’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팎의 우려와 친환경, 유기농에 관한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 치열한 저성장기의 경쟁시장에서 생협운동의 미래와, 생협 운동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의 미래세대는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일상과 노동, 주거와 복지는 어떠할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생협,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와 그들이 구상하는 미래에 생협,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는 ‘스펙’과 ‘일자리’가 아닌 대안의 삶, 협동의 가치와 미래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 대학생들의 삶과 생각을 알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 영역에서 보다 매력적이고, 보다 참여의 폭을 넓힐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설문 설계 및 기획

모심과살림연구소, 대학생협협동조합연합회 공동설계 및 기획

#### #연구 범위와 내용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협연합회와 모심과살림 연구소는 2018년 6월 17일부터 수차례의 기획 회의를 통해 다음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청년(대학생 등)의 생활 현황 파악(먹거리, 소비, 일자리, 주거, 진로 등)
- 청년(대학생 등)의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인지 및 참여정도 현황 파악
- 협동운동이 미래세대에게 대안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지 검토
- 1세대 협동조합 조직과 협동운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유기적 결합 모색

## 【설문 조사 진행 개요】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의 핵심인 의, 식, 주 문제와 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 그리고 경제관념과 진로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내 대학생협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를 위해 현재 대학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주체로서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6개 영역 46문항이 도출되었습니다.

1. 생활과 소비에 대한 질문
2. 주거와 소득에 대한 질문
3. 경제관념에 대한 질문
4. 대학 내의 문제와 생활
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인지 정도
6.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에 대한 질문

## #설문 진행

2017년 결산 기준 전국 회원조합의 학생조합원 수는 총 89,491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수도권이 49.8%, 강원, 경상, 전라, 충청권역의 합계 비율은 50.2%에 해당합니다.

대학생협의 활성화 정도는 조합원 가입을 통해 가늠될 수 있기에,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크게는 서울수도권역과 지방을 50%씩 나누어 총 1,500명의 모집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권역별	학생조합원 수	비율	응답목표	설문응답자	응답비율
수도권(11)	44,606	49.8%	747	863	52.8%
전라권(5)	24,235	27.1%	407	26	1.6%
강원권(3)	15,147	16.9%	253	494	30.2%
경상권(9)	3,721	4.2%	63	180	11.0%
충청권(3)	1,782	2.0%	30	71	4.3%
총합계(31)	89,491		1,500	1,634	

기획회의를 통해 다듬어진 설문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전국의 대학생협 학생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총 1,500명의 응답을 목표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설문은 2018년 9월 28일 까지 1,634명의 응답으로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 【설문 조사 진행 개요】

조사의 방식은 회원조합 홈페이지 또는 매장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무작위로 진행되고, 홍보 방법 또한 각 조합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지방권역은 지역별 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대학생협 설립 대학의 재(휴)학생
조사 기간	2018. 09. 10. ~ 09. 28.
조사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서베이 정량조사
목표 표본	1,500명
표본 구성	1,634명(최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방법	임의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에서 $\pm 1.96$ %

## #설문의 결과로

생활비에서 식비를 가장 아까워하거나, 개인부채는 등록금과 생활비가 주된 원인으로, 혼자만의 삶을 꿈꾸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동의하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과 정보 부족에 대한 요구 등 이 설문을 통해 소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협의 경우 주된 사업대상인 청년층의 소비 형태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필요한 서비스와 정책을 마련하는 곳에,

한살림등 일반 소비자생협의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사회적경제 전반 영역에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이번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같이 마주하고, 또 그저 하나의 '정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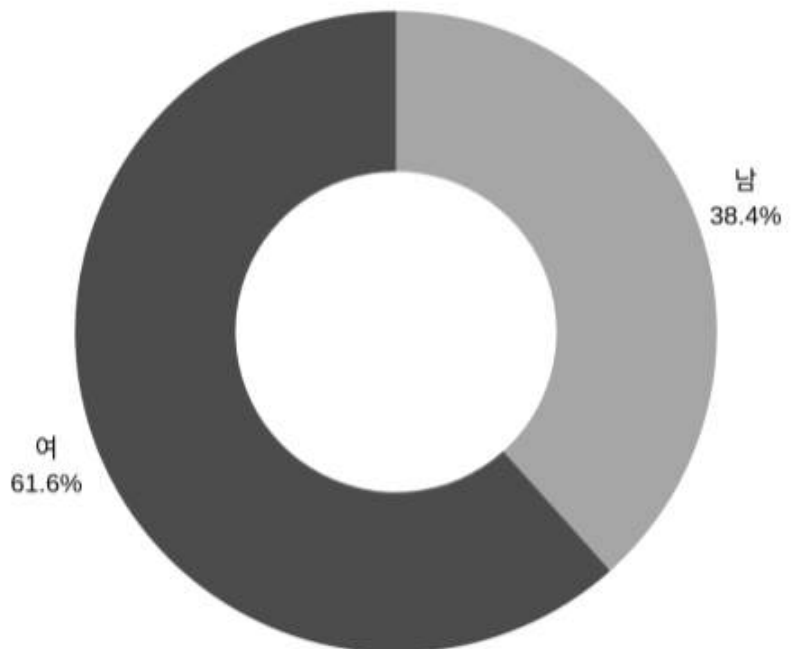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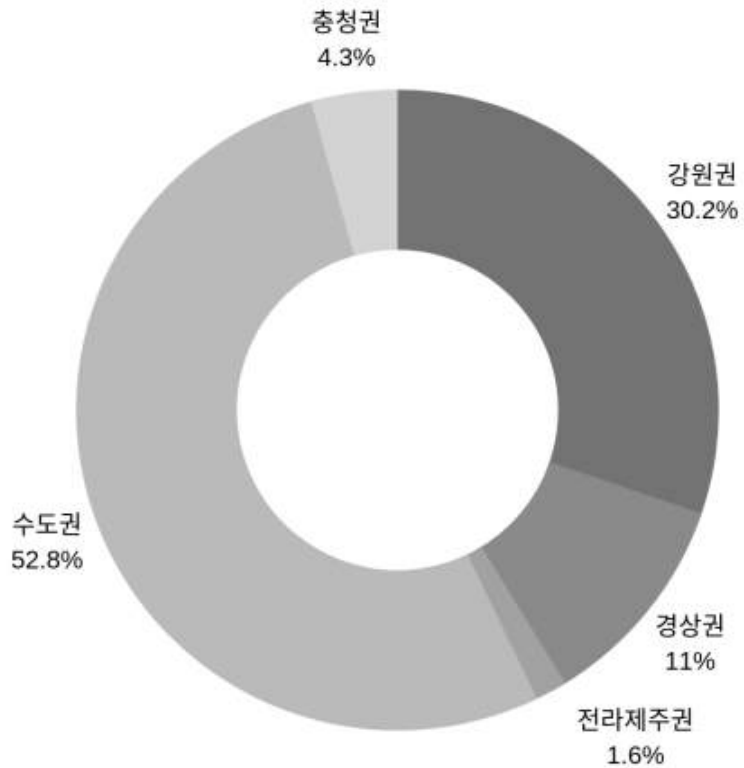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

## 설문 응답자 기본 정보

## 【설문 응답자 기본 정보】

이번 설문은 전국의 대학생협이 설립된 30개 대학 중 15개 대학의 1,63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대학의 위치에 따라 서울수도권 52.8%, 지방 47.2%의 비율로 응답을 볼 수 있었고,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 61.6%와 남성 38.4%가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연령대는 1학년부터 졸업준비생 까지 고른 분포로 참여하여 대학생의 전반적인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설문 응답자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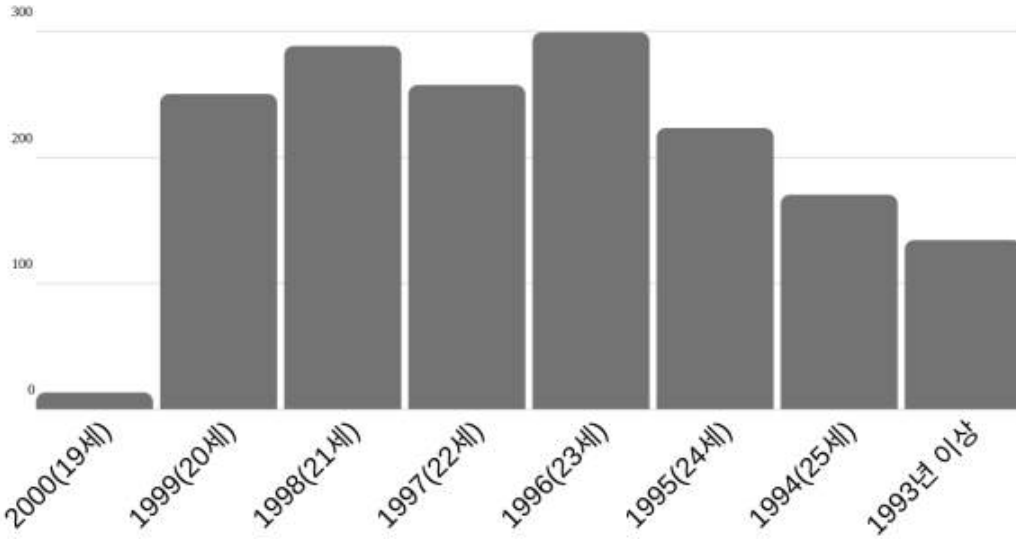


표.01 권역별 응답자 비율

항목	응답수	비율
수도권	863	52.8%
강원권	494	30.2%
경상권	180	11.0%
충청권	71	4.3%
전라제주권	26	1.6%
<b>총합계</b>	<b>1,634</b>	

표.02 응답자 성비율

항목	응답수	비율
남	627	38.4%
여	1,007	61.6%
<b>총합계</b>	<b>1,634</b>	

표.03 연령별 응답자 비율

항목	응답수	비율
2000(19세)	13	0.8%
1999(20세)	250	15.3%
1998(21세)	288	17.6%
1997(22세)	257	15.7%
1996(23세)	299	18.3%
1995(24세)	223	13.6%
1994(25세)	170	10.4%
1993년이상	134	8.2%
<b>총합계</b>	<b>1,634</b>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

## 경제생활 관련

## 【 경제생활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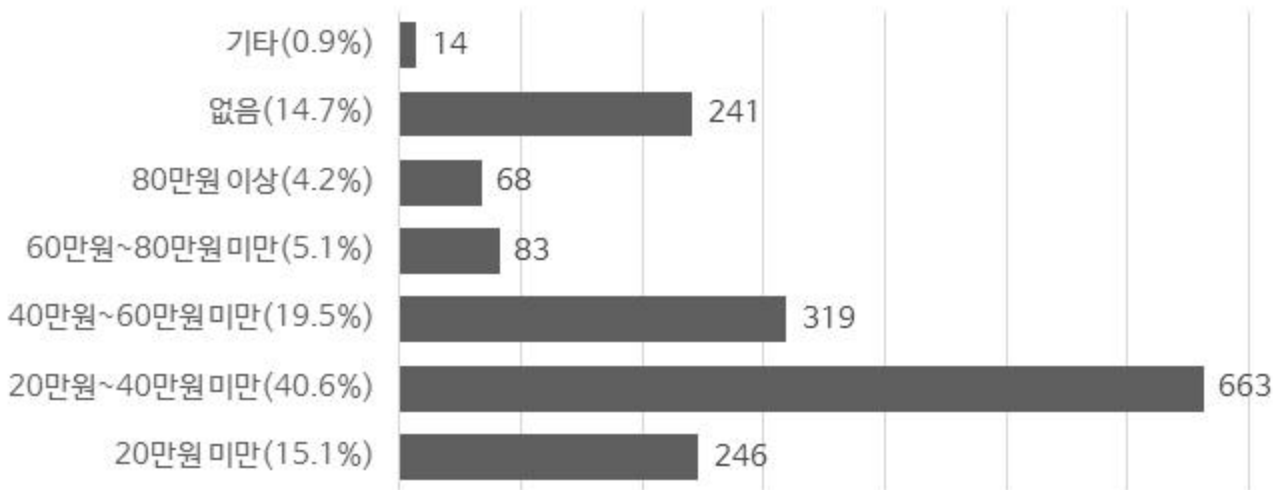
### #생활비에서 식비를 가장 아끼워해

대학생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다.

설문의 결과 월평균 주거비로는 20~4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이 넘으며(55.7%)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로는 월평균 40만원 미만이 53.7%를 차지하였다.

60만원 이상으로 지출하는 비율은 10.2%로 대부분 대학생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6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별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되는 비용으로 식비(57.2%)를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문화여가활동비(17.4%) 주거비(10.2%) 순으로 꼽았다.

### 월평균 주거비 지출 n.1634



**표.04** 월평균 주거비 지출은 얼마정도입니까?(관리비 포함)

항목	응답수	비율
20만원 미만	246	15.1%
20만원~40만원 미만	663	40.6%
40만원~60만원 미만	319	19.5%
60만원~80만원 미만	83	5.1%
80만원 이상	68	4.2%
없음	241	14.7%
기타	14	0.9%
<b>총합계</b>	<b>1,63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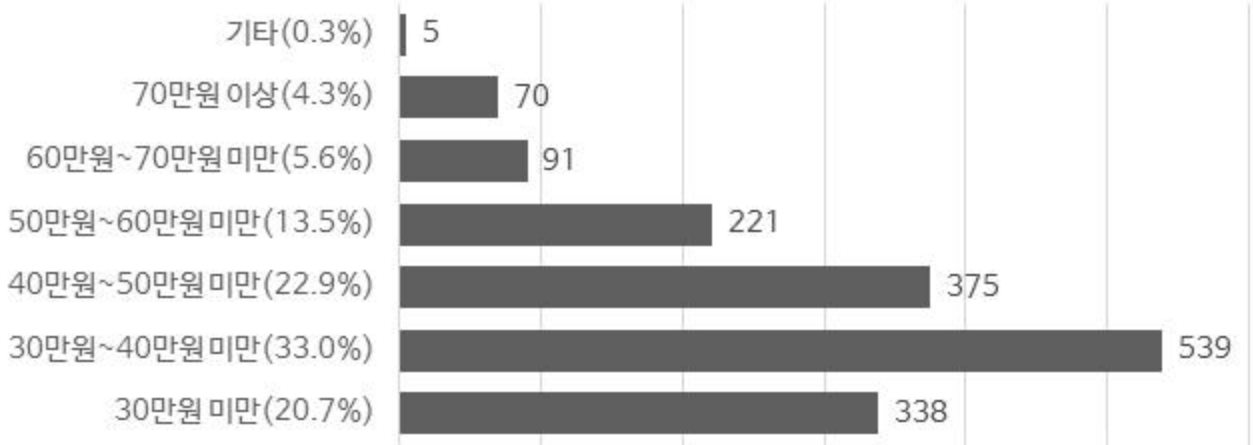
**표.05** 주거비를 제외한 월평균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는 얼마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30만원 미만	338	20.7%
30만원~40만원 미만	539	33.0%
40만원~50만원 미만	375	22.9%
50만원~60만원 미만	221	13.5%
60만원~70만원 미만	91	5.6%
70만원 이상	70	4.3%
기타	5	0.3%
<b>총합계</b>	<b>1,634</b>	

## 【 경제생활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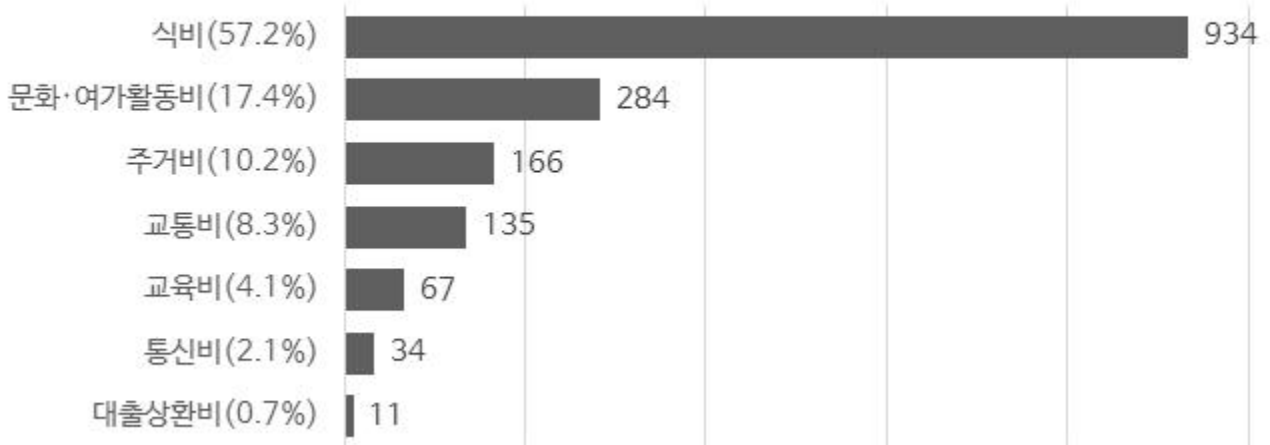
### 주거비 제외 생활비 지출

n.1634



### 생활비중 부담요소

n.1634



**표.06** 월별 생활비 지출에 있어 본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식비	934	57.2%
문화·여가활동비	284	17.4%
주거비	166	10.2%
교통비	135	8.3%
교육비	67	4.1%
통신비	34	2.1%
대출상환비	11	0.7%
기타	3	0.2%
<b>총합계</b>	<b>1,634</b>	

## 【 경제생활 관련 】

### #노동 소득으로는 저축은 물론 생활비도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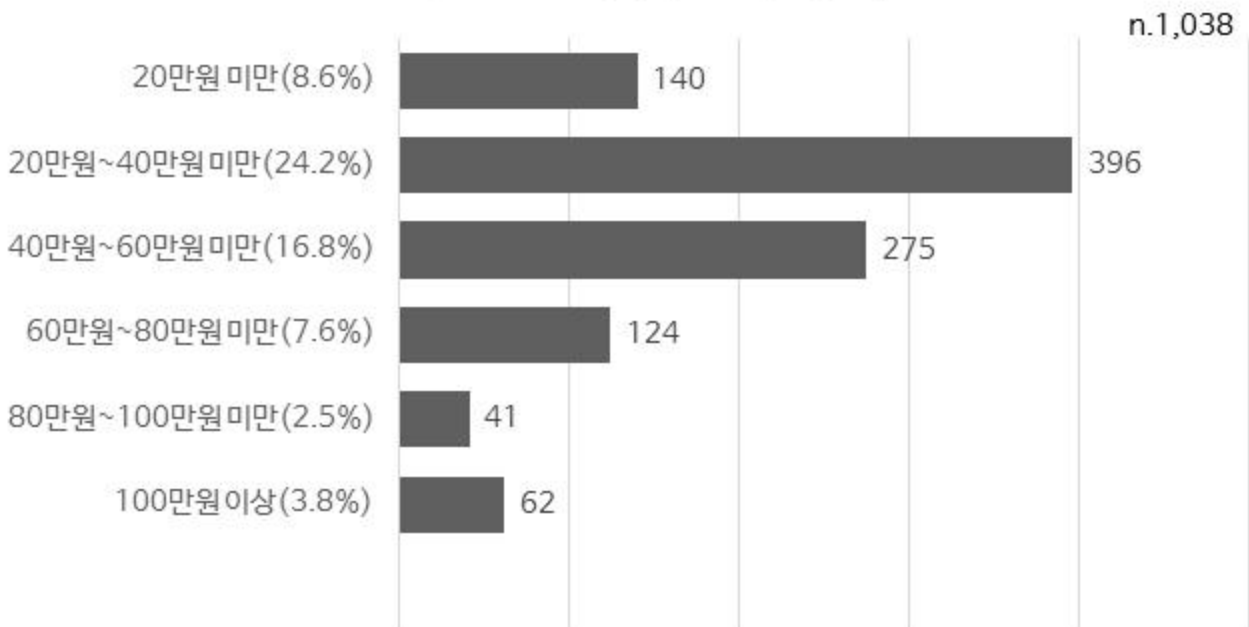
응답자의 63.5%는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36.5%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24.2%)나타났다. 소득활동을 통해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으나, 월평균 주거비 지출 역시 20~40만원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활동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소득활동 외에 부모 등 가정에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84.6%) 지원액은 50만원 미만이 65.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소득활동 여부



### 월평균 소득(아르바이트)



## 【 경제생활 관련 】

### 월 경제적 지원(가족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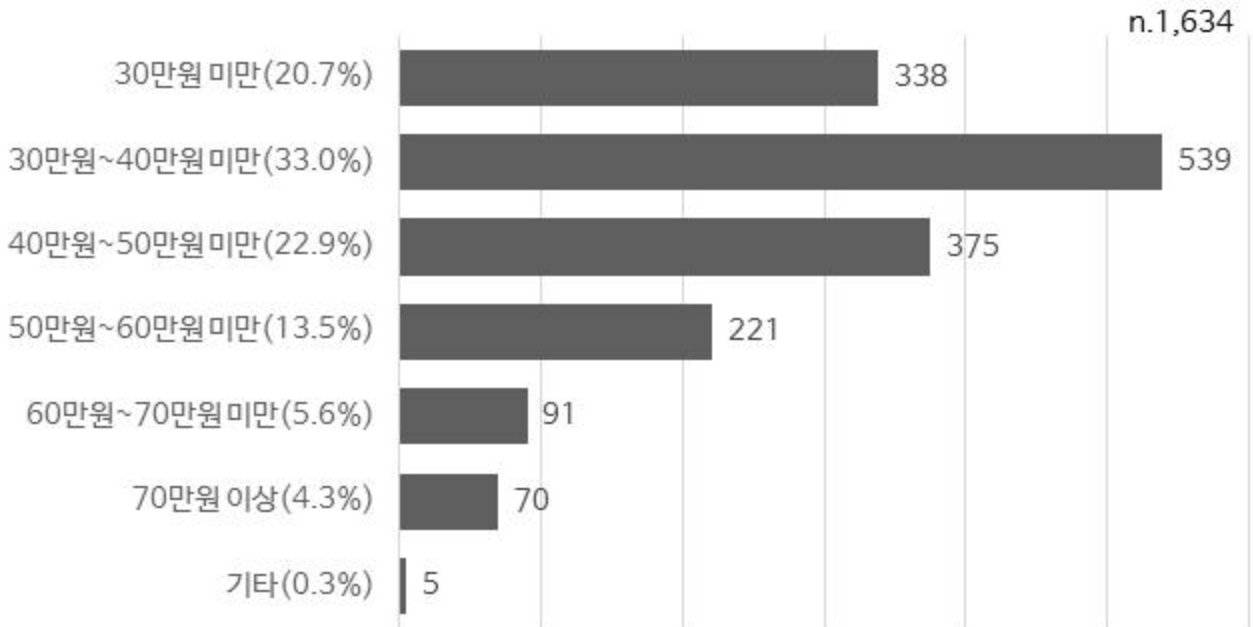


표.07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20만원 미만	140	8.6%
20만원~40만원 미만	396	24.2%
40만원~60만원 미만	275	16.8%
60만원~80만원 미만	124	7.6%
80만원~100만원 미만	41	2.5%
100만원 이상	62	3.8%
소득활동을 하지 않음	596	36.5%
<b>총합계</b>	<b>1,63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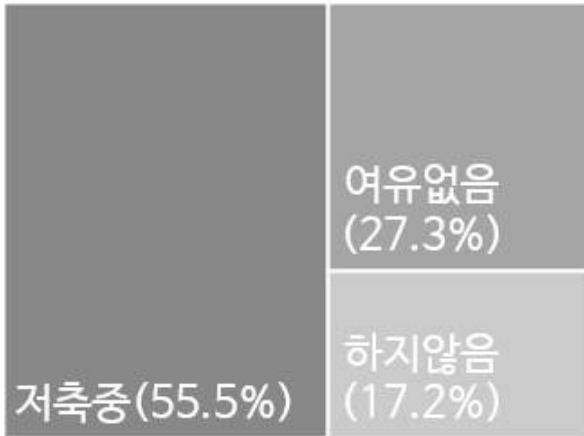
표.08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월평균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30만원 미만	338	20.7%
30만원~40만원 미만	539	33.0%
40만원~50만원 미만	375	22.9%
50만원~60만원 미만	221	13.5%
60만원~70만원 미만	91	5.6%
70만원 이상	70	4.3%
기타	5	0.3%
<b>총합계</b>	<b>1,634</b>	

## 【 경제생활 관련 】

### 저축 여부



전체 응답자의 55.5%는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 미만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6.3%로 비교적 소액이라도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을 하지 않은 44.4%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응답도 전체의 17.1%로 볼 수 있었다.

### 월평균 저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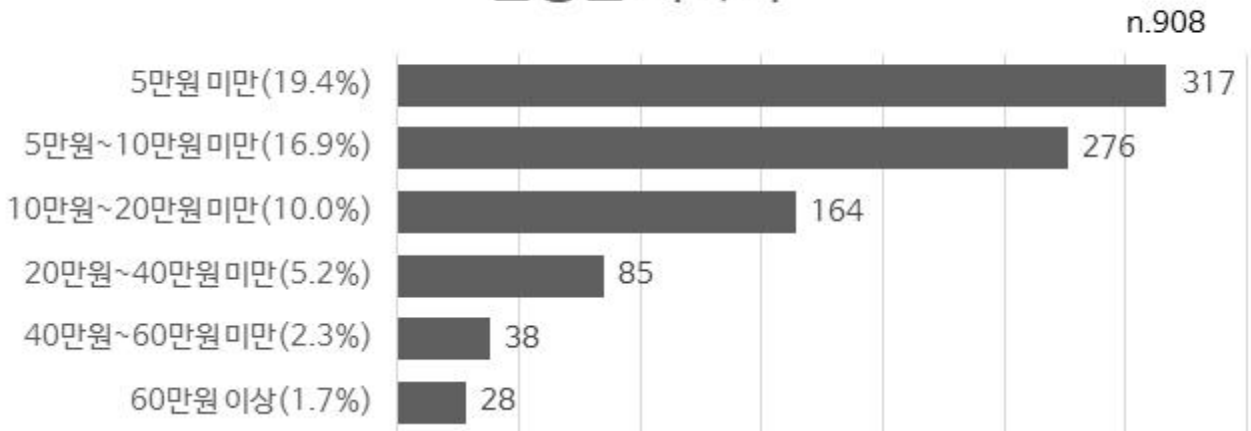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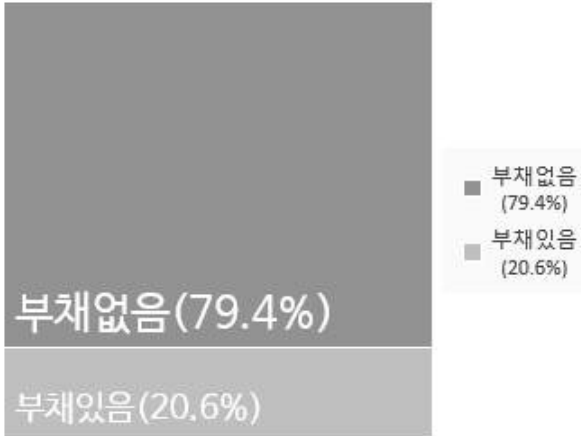
표.09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5만원 미만	317	19.4%
5만원~10만원 미만	276	16.9%
10만원~20만원 미만	164	10.0%
20만원~40만원 미만	85	5.2%
40만원~60만원 미만	38	2.3%
60만원 이상	28	1.7%
저축할 여유가 없음	446	27.3%
저축을 하지 않음	280	17.1%
<b>총합계</b>	<b>1,634</b>	

## 【 경제생활 관련 】

### #개인 부채의 주요 원인은 등록금과 생활비

#### 부채 여부



여기에 더해 응답자 중 20.6%는 본인 명의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꼽은 부채의 주된 원인은 첫 번째로 등록금 마련(44.8%), 두 번째로 생활비 마련(35.9%)순으로 응답했다.

부채의 규모는 500만원 미만이 62.6%를 차지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의 경우도 16.9%나 존재하였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으로 비교하여 부채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 쪽이 등록금 마련을 위한 비율이 30.3%높았고, 국공립대학 쪽은 주

거비 마련에 대한 비율이 6.8%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부채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15% 이상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설립 구분별 부채 원인 교차분석(국공립 기준)

부채원인	국공립		총합계
	국공립	사립	
등록금 마련	64 32.3%	87 62.6%	151 44.8%
생활비 마련	84 42.4%	37 26.6%	121 35.9%
취업준비	12 6.1%	2 1.4%	14 4.2%
문화/여가활동	5 2.5%	5 3.6%	10 3.0%
주거비 마련	22 11.1%	6 4.3%	28 8.3%
기타	11 5.6%	2 1.4%	13 3.9%
총합계	198 58.8%	139 41.2%	3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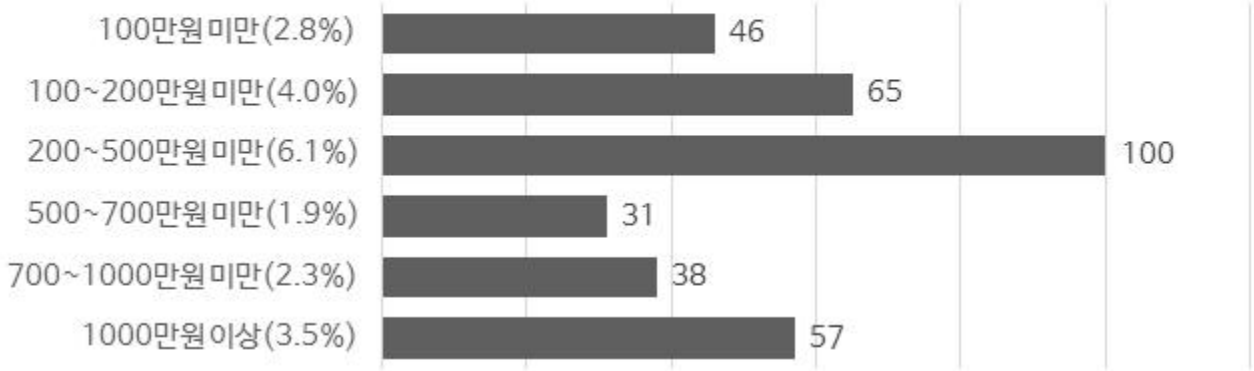
표.11 소득활동 대비 부채 현황 교차분석(부채 기준)

	부채		총합계
	있음	없음	
소득활동 중	256 76.0%	782 60.3%	1,038 63.5%
소득활동 없음	81 24.0%	515 39.7%	596 36.5%
총합계	36.3% 593	63.7% 1,297	100.0% 1,634

## 【 경제생활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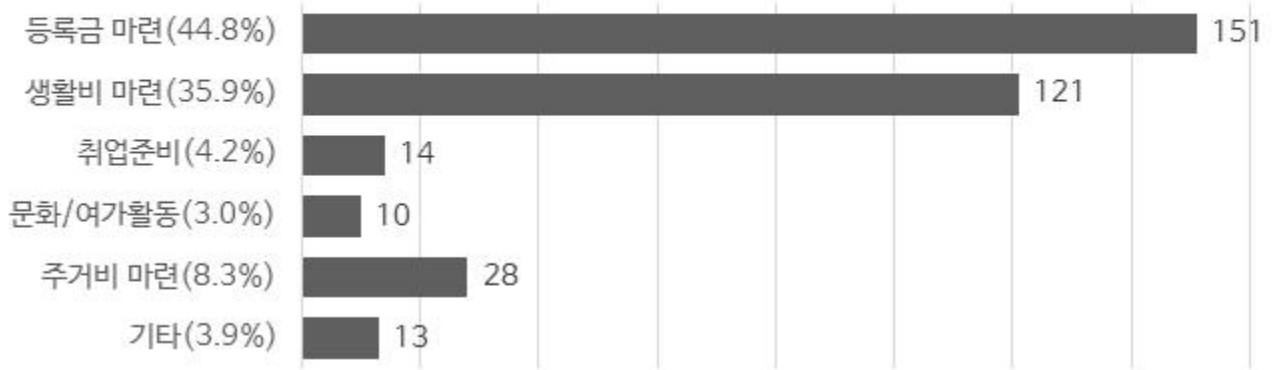
### 개인 부채 금액

n.337



### 개인 부채 원인

n.337



**표.12** 현재 본인 명의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규모(금액)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100만원 미만	46	2.8%
100~200만원 미만	65	4.0%
200~500만원 미만	100	6.1%
500~700만원 미만	31	1.9%
700~1000만원 미만	38	2.3%
1000만원 이상	57	3.5%
부채없음	1,297	79.4%
<b>총합계</b>	<b>1,634</b>	

**표.13** 개인 명의의 부채가 있다면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등록금 마련	151	44.8%
생활비 마련	121	35.9%
취업준비	14	4.2%
문화/여가활동	10	3.0%
주거비 마련	28	8.3%
기타	13	3.9%
<b>총합계</b>	<b>337</b>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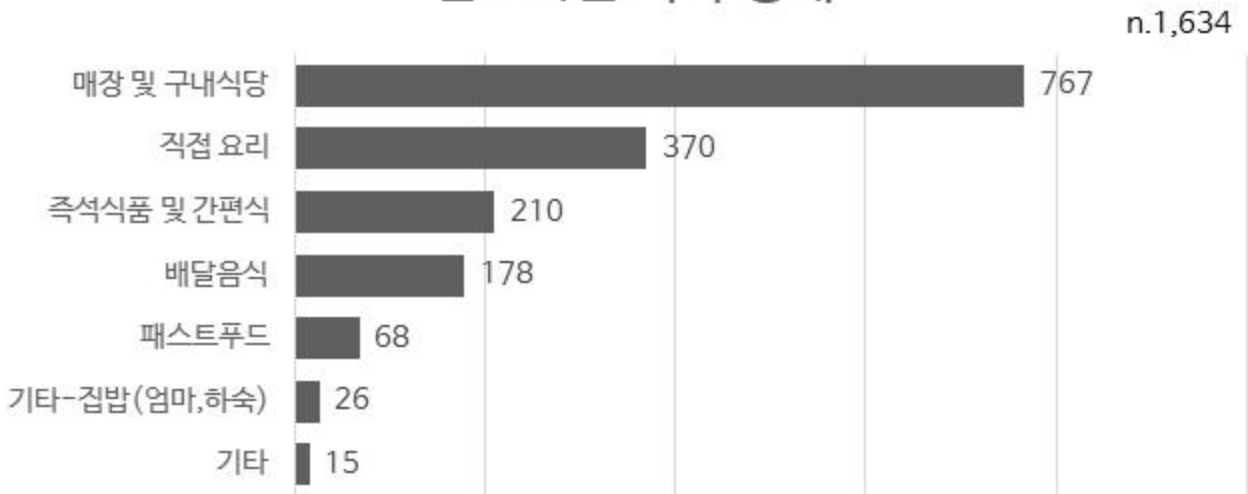
## 식생활 관련

## 【 식생활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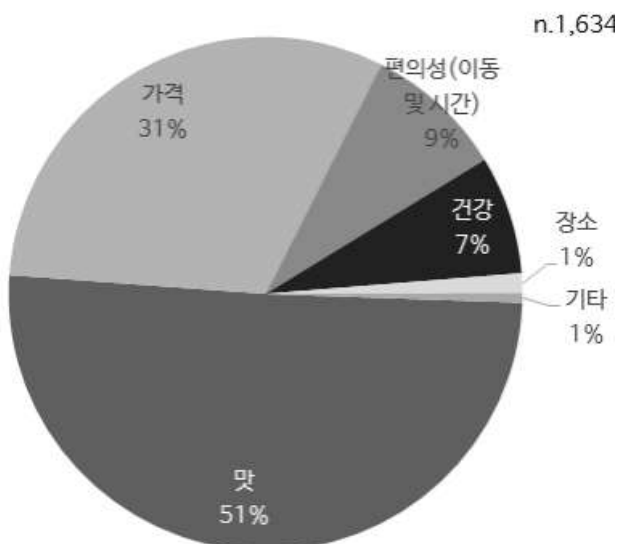
### #사먹거나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사를 선호

직접 조리를 한다면 식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숙사나 고시원 같이 제대로 된 조리를 할 수 없는 주거 환경이라면 직접 조리는 쉽지 않기에 대학생들은 주로 매장 및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48.9%)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직접 요리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22.6%나 되는 등 낮지 않으며, 어느 정도 조리가 필요한 즉석식품 및 간편식을 조리의 범주에 포함할 경우, 스스로 조리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비율이 35.5%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 선호하는 식사 형태



### 식사 선택 기준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50.6%가 '맛'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가격'(31.3%)으로 나타났다. 식사 선정 기준에서 맛과 가격은 81.9%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를 따지는 대학생들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생활비 중 식비가 가장 부담이라고 답한 934명의 응답에서도 '맛'의 응답 비율이 48.2%로 식사 선택에 있어 맛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여진다.

## 【 식생활 관련 】

**표.14**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 형태는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매장 및 구내식당	767	46.9%
직접 요리	370	22.6%
즉석식품 및 간편식 (즉석밥, 도시락, 3분요리)	210	12.9%
배달음식	178	10.9%
패스트푸드	68	4.2%
기타-집밥(엄마,하숙)	26	1.6%
기타	15	0.9%
<b>총합계</b>	<b>1,63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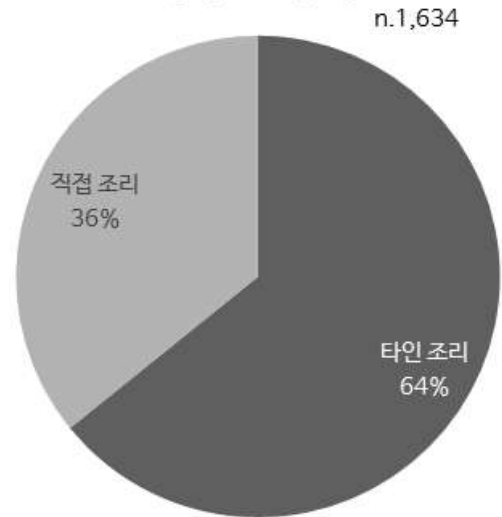
**표.15** 식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맛	827	50.6%
가격	511	31.3%
편의성(이동 및 시간)	144	8.8%
건강	122	7.5%
장소	20	1.2%
기타	10	0.6%
<b>총합계</b>	<b>1,634</b>	

**표.16**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 형태는 무엇입니까?-2

항목	응답수	비율
타인 조리	1,039	64.2%
직접 조리	580	35.8%
<b>총합계</b>	<b>1,619</b>	

식사 선택 기준



## 【 식생활 관련 】

###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 하루 세끼 섭취할 빈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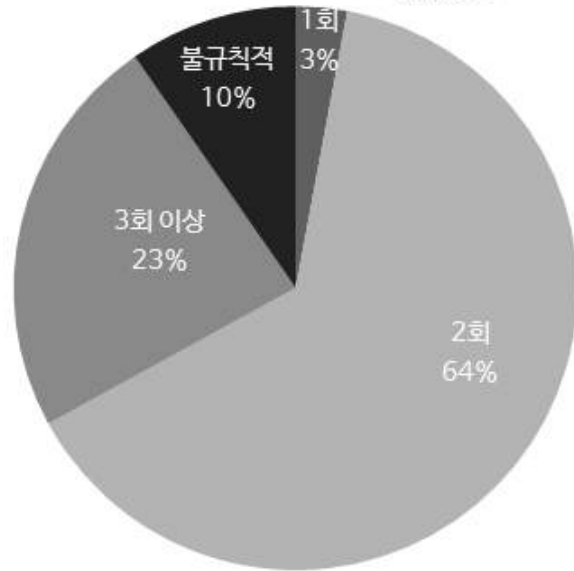
하루 세끼를 꼭 챙겨 먹는 대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삼시세끼’라는 말이 마치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듯하지만,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하루에 2회 정도의 식사를 하고 있다.(64.1%)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은 23.3%로 나타났으며,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은 9.7%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로 살펴보았을 때 기숙사, 하숙, 자취, 가족과 거주 등 전 주거 형태에서도 일 2회 식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서가 다른 주거형태보다는 하루 3끼 이상을 식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 평균 식사 횟수

n.1,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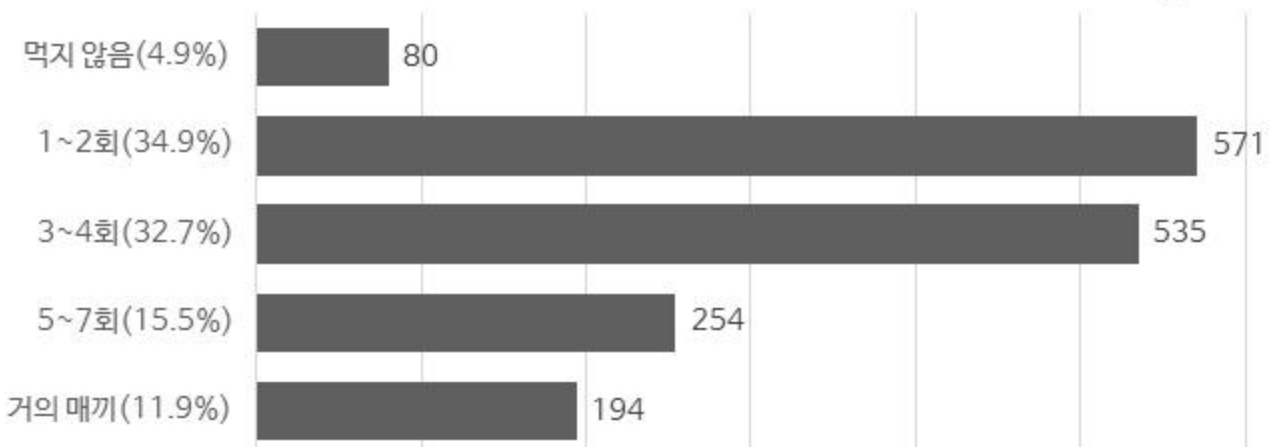


응답자의 경우 외식 또는 배달음식, 편의점 음식을 먹는 경우는 주당 1~4회가 67.6%로 나타났으며, 먹지 않는 경우는 4.9%로 나타났다.

거의 매끼를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11.9%가 나타났으며, 이 경우는 고시원 거주나, 형제 자매, 친구들과 함께 자취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당 외식/배달/편의점 음식 섭취 빈도

n.1,634



## 【 식생활 관련 】

표.17 주거 형태별 일 평균 식수 교차비교(거주형태 기준)

거주형태 일평균 식수	가족과 함께거주	기숙사 및 하숙	청년 임대주택	혼자서 자취	함께자취 (쉐어하우스)	기타 (친척집) (고시원)	총합계
1회	12	16	1	17	2		48
	2.6%	2.9%	4.5%	3.6%	1.7%		2.9%
2회	254	354	15	326	86	12	1047
	55.0%	64.2%	68.2%	69.8%	72.9%	85.7%	64.1%
3회 이상	153	133	5	72	18		381
	33.1%	24.1%	22.7%	15.4%	15.3%		23.3%
불규칙적	43	48	1	52	12	2	158
	9.3%	8.7%	4.5%	11.1%	10.2%	14.3%	9.7%
총합계	462	551	22	467	118	14	1634
	28.3%	33.7%	1.3%	28.6%	7.2%	0.9%	100.0%

표.18 주거 형태별 주 평균 외식 / 편의점 / 배달음식 섭취 빈도 교차비교(거주형태 기준)

거주형태 외식 비율	가족과 함께거주	기숙사 및 하숙	청년 임대주택	혼자서 자취	함께자취 (쉐어하우스)	기타 (친척집) (고시원)	총합계
먹지 않음	30	26	2	19	2	1	80
	6.5%	4.7%	9.1%	4.1%	1.7%	7.1%	4.9%
1~2회	172	220	8	137	31	3	571
	37.2%	39.9%	36.4%	29.3%	26.3%	21.4%	34.9%
3~4회	159	171	3	168	31	3	535
	34.4%	31.0%	13.6%	36.0%	26.3%	21.4%	32.7%
5~7회	70	70	6	76	29	3	254
	15.2%	12.7%	27.3%	16.3%	24.6%	21.4%	15.5%
거의 매끼	31	64	3	67	25	4	194
	6.7%	11.6%	13.6%	14.3%	21.2%	28.6%	11.9%
총합계	462	551	22	467	118	14	1634
	28.3%	33.7%	1.3%	28.6%	7.2%	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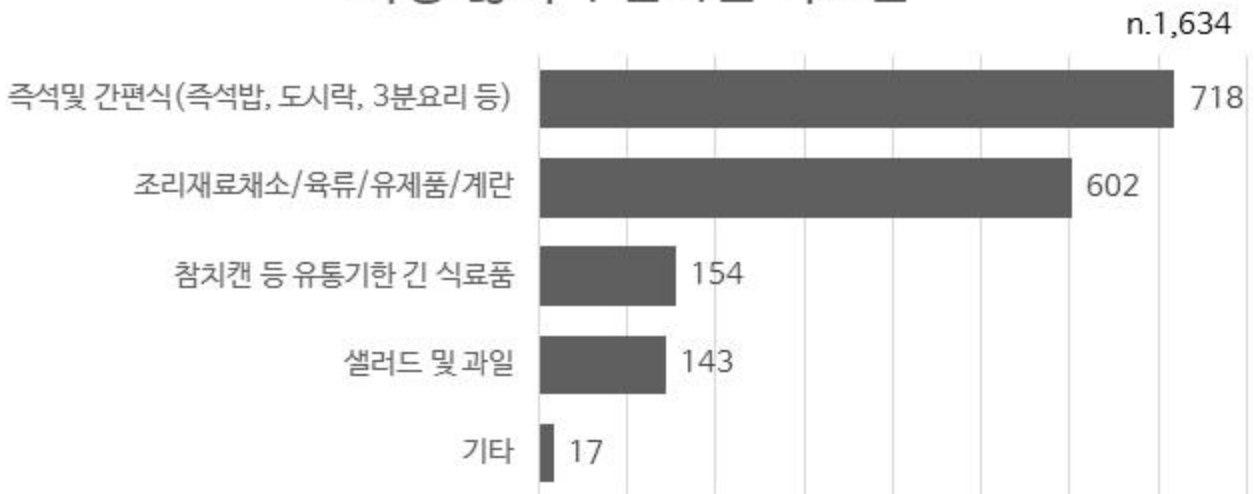
## 【 식생활 관련 】

### #즉석식품, 간편식 구매를 선호하며 주로 대형마트를 찾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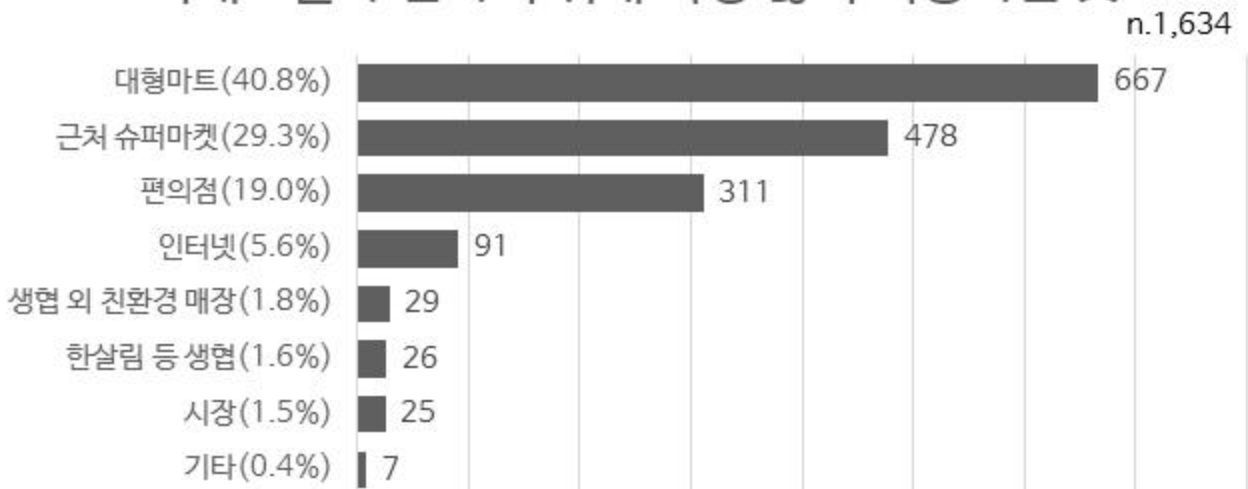
응답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식자재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식품과 간편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3.9%) 그 다음으로는 앞서 직접 조리를 선호한다는 응답(35.8%)과 유사하게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야채 및 고기, 유제품, 계란 등 원재료를 구입하는 비중이 36.8%로 응답되었다. 샐러드와 과일, 참치캔 등 유통기한이 긴 식료품의 비율은 10% 이내로 나타났으며 식재료를 주로 구매하는 곳에 대해서는 40.8%가 대형마트를 선택하였다.

한살림 등 생협 매장을 이용하는거나 친환경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 집 근처 시장을 이용하는 응답은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나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선호 경향을 보여주었다.

###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식료품



###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 【 식생활 관련 】

조리할수 있는 환경인 가족과 함께 거주 형태나 임대주택, 자취의 경우 원재료 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씩 높게 나타났고, 기숙사나 하숙, 고시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즉석식품 구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19** 주거 형태별 구입 식재료 빈도 교차비교(거주형태 기준)

거주형태 구입 식재료	가족과 함께거주	기숙사 및 하숙	청년 임대주택	혼자서 자취	함께자취 (쉐어하우스)	기타 (친척집 (고시원))	총합계
조리재료채 소/육류/유 제품/계란	221 47.8%	116 21.1%	10 45.5%	195 41.8%	57 48.3%	3 21.4%	602 36.8%
참치캔 등 유통기한 긴 식료품	41 8.9%	45 8.2%	4 18.2%	50 10.7%	12 10.2%	2 14.3%	154 9.4%
즉석및 간편식(즉석 밥, 도시락, 3분요리 등)	157 34.0%	319 57.9%	6 27.3%	191 40.9%	38 32.2%	7 50.0%	718 43.9%
샐러드 및 과일	37 8.0%	63 11.4%	2 9.1%	31 6.6%	9 7.6%	1 7.1%	143 8.8%
기타	6 1.3%	8 1.5%	0.0%	0.0%	2 1.7%	1 7.1%	17 1.0%
<b>총합계</b>	<b>462</b> <b>28.3%</b>	<b>551</b> <b>33.7%</b>	<b>22</b> <b>1.3%</b>	<b>467</b> <b>28.6%</b>	<b>118</b> <b>7.2%</b>	<b>14</b> <b>0.9%</b>	<b>1634</b> <b>100.0%</b>

**표.20**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식료품은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즉석식품 및 간편식 (즉석밥,도시락,3분요리등)	718	43.9%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채소/육류/유제품/계란 등	602	36.8%
유통기한 긴 식료품 (참치 등)	154	9.4%
샐러드 및 과일	143	8.8%
기타	17	1.0%
<b>총합계</b>	<b>1,634</b>	

**표.21**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대형마트	667	40.8%
근처 슈퍼마켓	478	29.3%
편의점	311	19.0%
인터넷	91	5.6%
생협 외 친환경 매장	29	1.8%
한살림 등 생협	26	1.6%
시장	25	1.5%
기타	7	0.4%
<b>총합계</b>	<b>1,634</b>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

## 주거 관련

## 【 주거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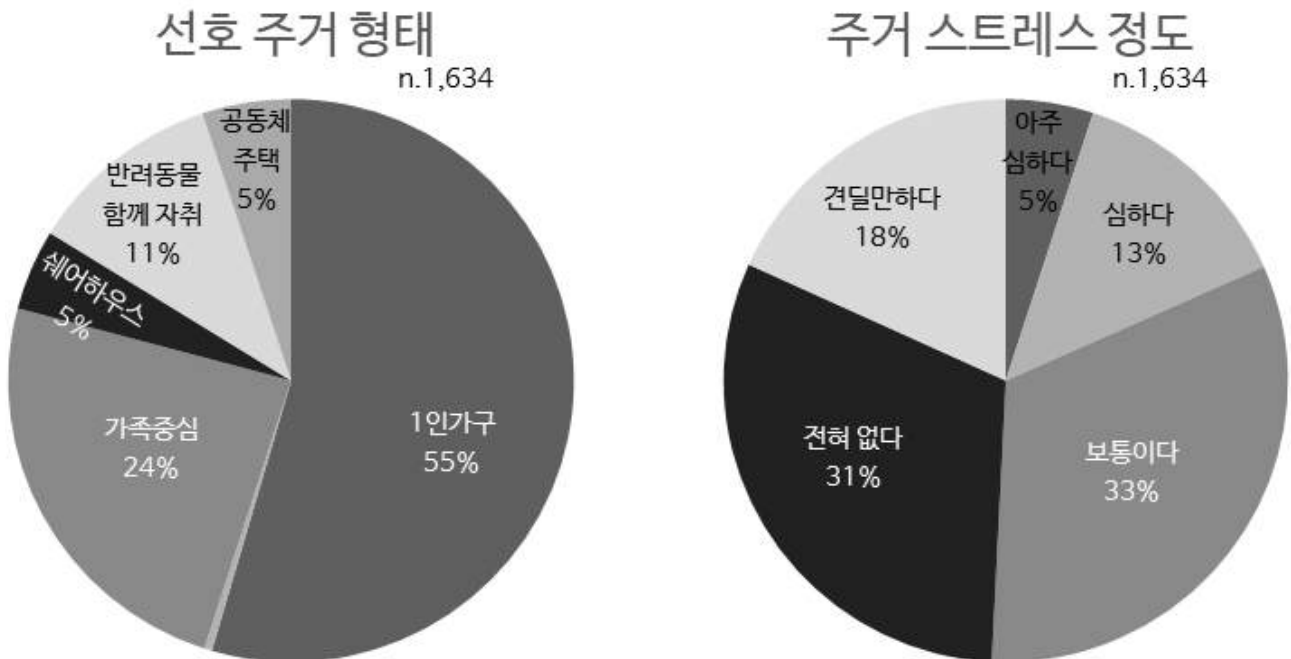
### #함께 살고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꿈꾼다.

응답자들의 현재 주거는 기숙사 또는 하숙이 33.7%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혼자서 자취 (28.6%), 가족과 함께 거주(28.3%) 순이며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고시원 등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수 있는 1인 가구의 선호도가 54.5%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가 24.2%, 혼자 있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공동의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 주택이나 셰어하우스의 선호는 9.8%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형태의 거주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18.3%가 심하다고 느낀 반면 81.7%는 견딜만 하거나 보통으로 응답을 하였다.

1인 가구의 선호도는 현재 주거형태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44.2%)나 지인, 친척, 형제자매가 함께 자취하는 경우(46.6%)에도 1인 가구의 선호가 가장 높았고, 혼자서 자취를 하는 경우는 63.0%로 나타났다.



## 【 주거 관련 】

### 현재 거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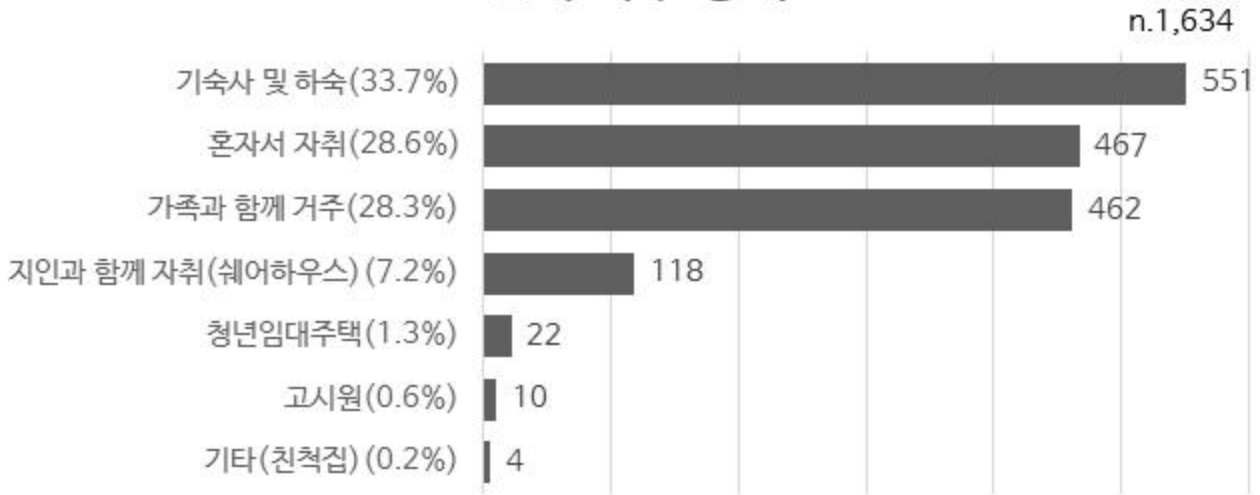


표.22 주거 형태별 선호 주거 형태 빈도 교차비교(거주형태 기준)

주거형태 선호 주거형태	가족과 함께거주	기숙사 및 하숙	청년 임대주택	혼자서 자취	함께자취 (쉐어하우스)	기타 (친척집 고시원)	총합계
1인가구	204	314	14	294	55	10	891
	44.2%	57.0%	63.6%	63.0%	46.6%	71.4%	54.5%
가족중심	176	122		74	21	2	395
	38.1%	22.1%	0.0%	15.8%	17.8%	14.3%	24.2%
쉐어 하우스	12	34	3	13	14		76
	2.6%	6.2%	13.6%	2.8%	11.9%		4.7%
공동체 주택	19	28	5	18	12	1	83
	4.1%	5.1%	22.7%	3.9%	10.2%	7.1%	5.1%
반려동물 함께 자취	49	51		67	14	1	182
	10.6%	9.3%	0.0%	14.3%	11.9%	7.1%	11.1%
기타	2	2		1	2		7
	0.4%	0.4%	0.0%	0.2%	1.7%		0.4%
총합계	462	551	22	467	118	14	1634
	28.3%	33.7%	1.3%	28.6%	7.2%	0.9%	100.0%

## 【 주거 관련 】

**표.23** 현재 본인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기숙사 및 하숙	551	33.7%
혼자서 자취	467	28.6%
가족과 함께 거주	462	28.3%
형제자매, 친구 등과 함께 자취(쉐어하우스)	118	7.2%
청년임대주택	22	1.3%
고시원	10	0.6%
기타(친척집)	4	0.2%
<b>총합계</b>	<b>1,634</b>	

**표.24**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생활 형태는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혼자만의 시간 확보 (1인가구)	891	54.5%
가족중심 (가족과 함께 거주)	395	24.2%
독립과 돌봄 (반려동물과 함께 자취)	182	11.1%
소통하는 삶 (공동체주택)	83	5.1%
소유보다 공유 (쉐어하우스)	76	4.7%
기타	7	0.4%
<b>총합계</b>	<b>1,634</b>	

**표.25** 현재 주거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아주 심하다	82	5.0%
심하다	218	13.3%
보통이다	530	32.4%
전혀 없다	506	31.0%
견딜만하다	298	18.2%
<b>총합계</b>	<b>1,634</b>	

## 【 주거 관련 】

표.26 주거 형태별 선호 주거 형태 빈도 교차비교(거주형태 기준)

주거형태 선호 주거형태	가족과 함께거주	기숙사 및 하숙	청년 임대주택	혼자서 자취	함께자취 (쉐어하우스)	기타 (친척집) (고시원)	총합계
아주 심하다	12	24	2	28	14	2	82
	2.6%	4.4%	9.1%	6.0%	11.9%	14.3%	5.0%
심하다	30	63	3	101	17	4	218
	6.5%	11.4%	13.6%	21.6%	14.4%	28.6%	13.3%
보통이다	110	185	9	182	39	5	530
	23.8%	33.6%	40.9%	39.0%	33.1%	35.7%	32.4%
전혀 없다	266	154	4	65	15	2	506
	57.6%	27.9%	18.2%	13.9%	12.7%	14.3%	31.0%
견딜만하다	44	125	4	91	33	1	298
	9.5%	22.7%	18.2%	19.5%	28.0%	7.1%	18.2%
총합계	462	551	22	467	118	14	1634
	28.3%	33.7%	1.3%	28.6%	7.2%	0.9%	100.0%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

## 대학생활 관련

## 【 대학생활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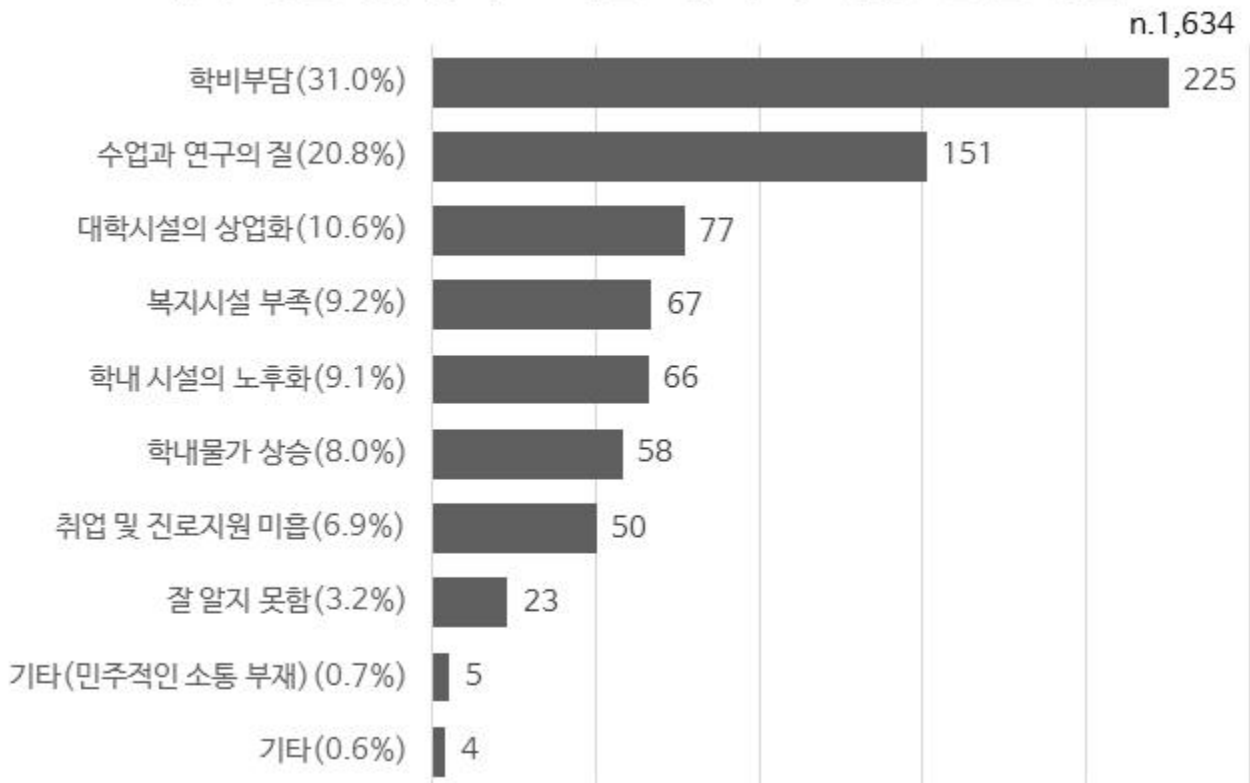
### #등록금 대 수업의 질, 가성비는 괜찮을까?

응답자들이 대학 생활을 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수업과 연구의 질에 대한 내용이었다.(20.6%) 이어서 학비 부담의 문제(19.6%), 기숙사 편의매장 등 복지시설 부족(14.3%)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민주적인 소통의 부재가 1.0% 정도 제출되었다.

수도권과 지방권역을 나누어서 비교해서 보아도, 수업의 연구와 질 문제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학 시설의 상업화 문제와 학비부담 문제는 수도권이 지방권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반대로 학내시설의 노후화나 취업 및 진로지원 미흡은 지방권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국공립과 사립을 비교해도 수업의 연구와 질 문제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대학 상업화 문제와 학비 부담 문제는 사립 대학쪽이 높게 나타나고, 시설 노후화나 복지시설 부족, 취업 및 진로지원 미흡 문제는 국공립대학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대학 생활 중에서 느끼는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



## 【 대학생활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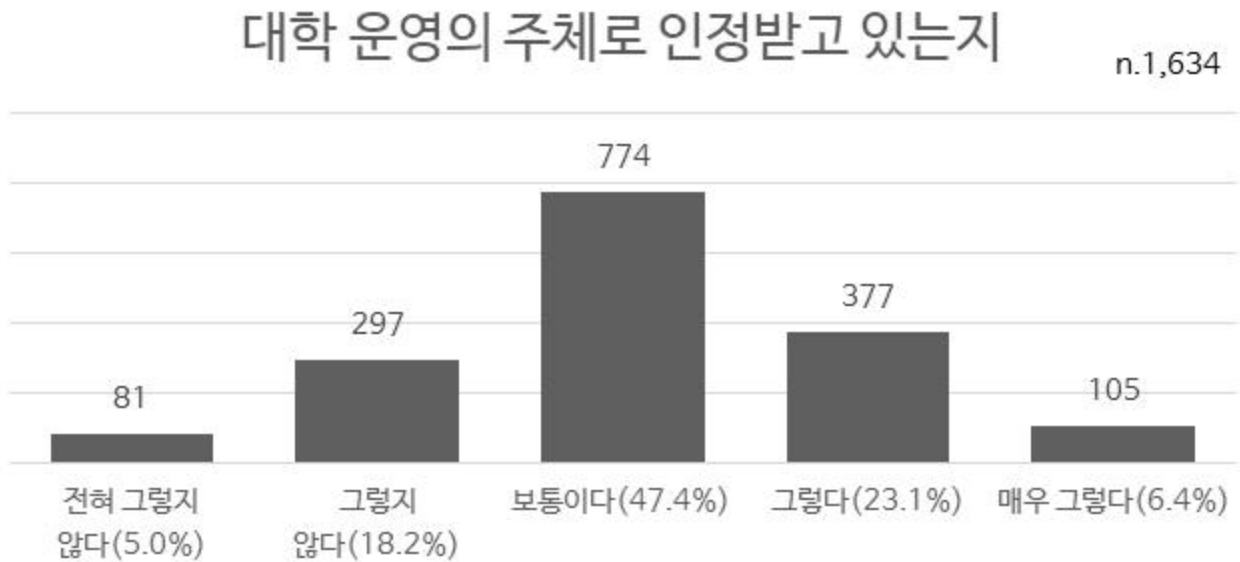
표.27 권역별/형태별 대학 문제 빈도 교차비교(권역 / 설립형태 기준)

대학문제 \ 권역별/형태별	수도권	지방권	총합계	국공립	사립
대학시설의 상업화	89	40	<b>129</b>	52	77
	10.3%	5.2%	<b>7.9%</b>	5.7%	10.6%
학비부담	244	77	<b>321</b>	96	225
	28.3%	10.0%	<b>19.6%</b>	10.6%	31.0%
수업과 연구의 질	185	152	<b>337</b>	186	151
	21.4%	19.7%	<b>20.6%</b>	20.5%	20.8%
기숙사,편의매장 등 복지시설 부족	100	134	<b>234</b>	167	67
	11.6%	17.4%	<b>14.3%</b>	18.4%	9.2%
학내 시설의 노후화	69	112	<b>181</b>	115	66
	8.0%	14.5%	<b>11.1%</b>	12.7%	9.1%
취업 및 진로지원 미흡	67	142	<b>209</b>	159	50
	7.8%	18.4%	<b>12.8%</b>	17.5%	6.9%
학내물가 상승	67	41	<b>108</b>	50	58
	7.8%	5.3%	<b>6.6%</b>	5.5%	8.0%
잘 알지 못함	31	56	<b>87</b>	64	23
	3.6%	7.3%	<b>5.3%</b>	7.0%	3.2%
기타	6	6	<b>12</b>	8	4
	0.7%	0.8%	<b>0.7%</b>	0.9%	0.6%
기타 (민주적인 소통 부재)	5	11	<b>16</b>	11	5
	0.6%	1.4%	<b>1.0%</b>	1.2%	0.7%
총합계	<b>863</b>	<b>771</b>	<b>1634</b>	<b>908</b>	<b>726</b>
	<b>52.8%</b>	<b>47.2%</b>	<b>100.0%</b>	<b>55.6%</b>	<b>44.4%</b>

## 【 대학생할 관련 】

### #대학의 운영 주체로서의 인정은 찬반이 유사함

학생 본인이 대학 운영의 주체로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를 제외한 긍정 요소(29.5%)와 부정요소(23.2%)가 비슷한 크기로 응답이 되었으며, 수도권/지방 뿐만 아니라 국공립/사립의 경우에도 눈에 띄는 차이 없이 비슷한 응답값을 보여 주었다.



**표.28** 학생으로서 본인이 대학운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매우 그렇다	105	6.4%
그렇다	377	23.1%
보통이다	774	47.4%
그렇지 않다	297	18.2%
전혀 그렇지 않다	81	5.0%
<b>총합계</b>	<b>1,634</b>	

## 【 대학생할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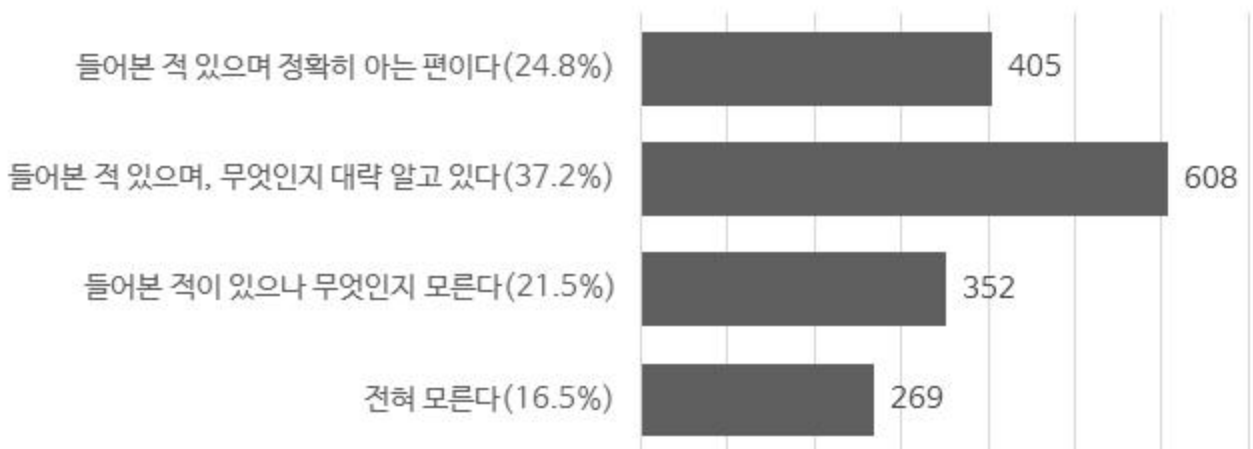
### #대학생협은 대학생할에 큰 도움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협을 알고 있는 응답은 62.0%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는 대학생협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협 참여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조합원은 아니지만 사업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27.7%로, 일반조합원이 26.9%, 적극 참여 활동가는 5.9%로 나타났다.

대학생협 활동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535명의 답변에서는 대학생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지인의 추천(15.0%)과 학내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13.6%), 대학생협 가치에 대한 공감(12.1%)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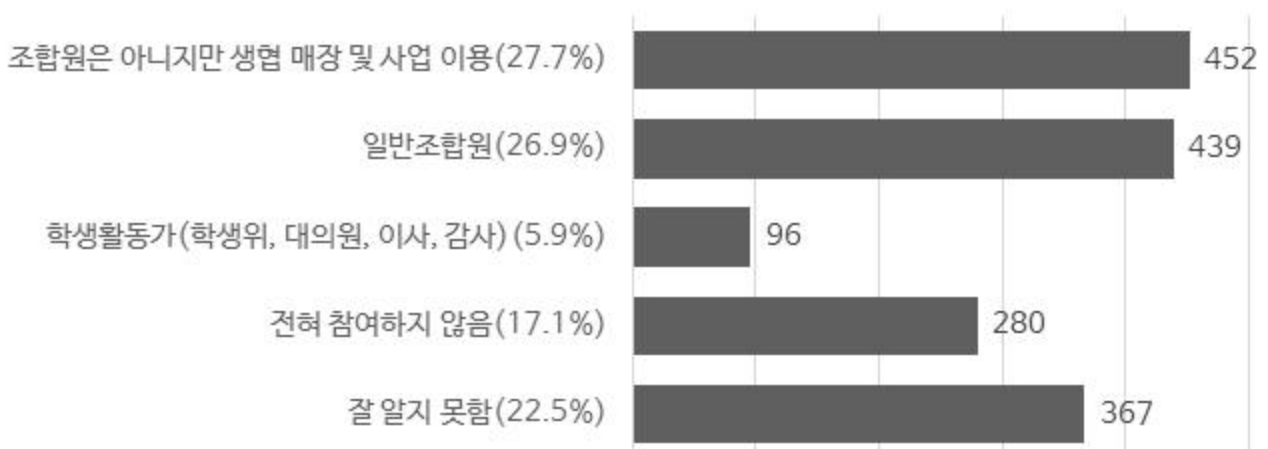
### 대학생협 인지 정도

n.1,634



### 대학생협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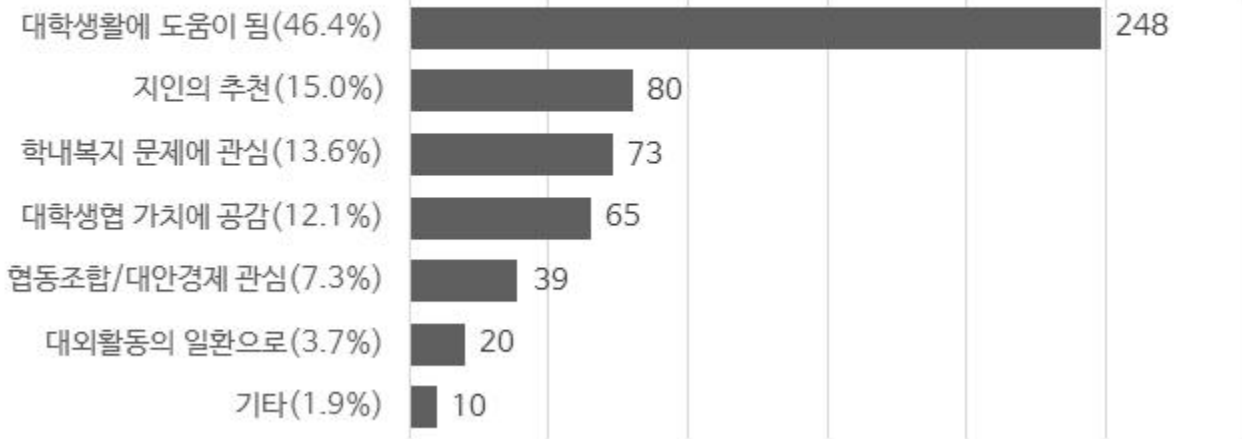
n.1,634



## 【 대학생활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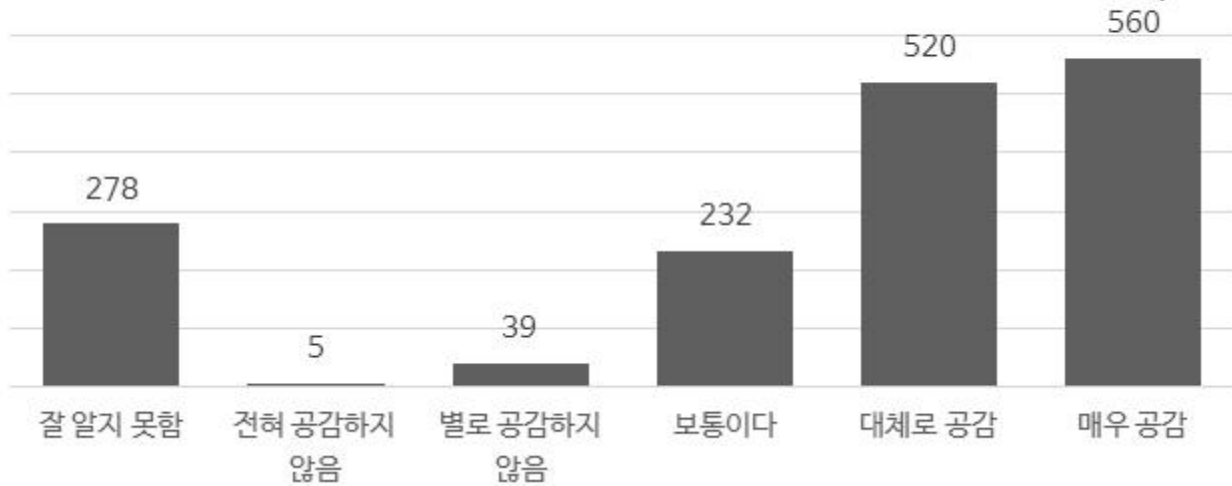
### 대학생협 참여 동기

n.1,634



### 대학생협 가치 공감 정도

n.1,634



## 【 대학생할 관련 】

**표.29** 귀하는 대학생협을 알고 계신가요?

항목	응답수	비율
들어본 적 있으며 정확히 아는 편이다	405	24.8%
들어본 적 있으며, 무엇인지 대략 알고 있다	608	37.2%
들어본 적이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	352	21.5%
전혀 모른다	269	16.5%
<b>총합계</b>	<b>1,634</b>	

**표.30** 귀하는 대학생협이 학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매우 공감	560	34.3%
대체로 공감	520	31.8%
보통이다	232	14.2%
별로 공감하지 않음	39	2.4%
전혀 공감하지 않음	5	0.3%
잘 알지 못함	278	17.0%
<b>총합계</b>	<b>1,634</b>	

**표.31** 귀하는 현재 대학생협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조합원은 아니지만 생협 매장 및 사업 이용	452	27.7%
일반조합원	439	26.9%
학생활동가(학생위원회, 대의원, 이사 및 감사 등)	96	5.9%
전혀 참여하지 않음	280	17.1%
잘 알지 못함	367	22.5%
<b>총합계</b>	<b>1,634</b>	

**표.32**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대학생활에 도움이 됨	248	46.4%
지인의 추천	80	15.0%
학내복지 문제에 관심	73	13.6%
대학생협 가치에 공감	65	12.1%
협동조합/대안경제 관심	39	7.3%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20	3.7%
기타	10	1.9%
<b>총합계</b>	<b>1,634</b>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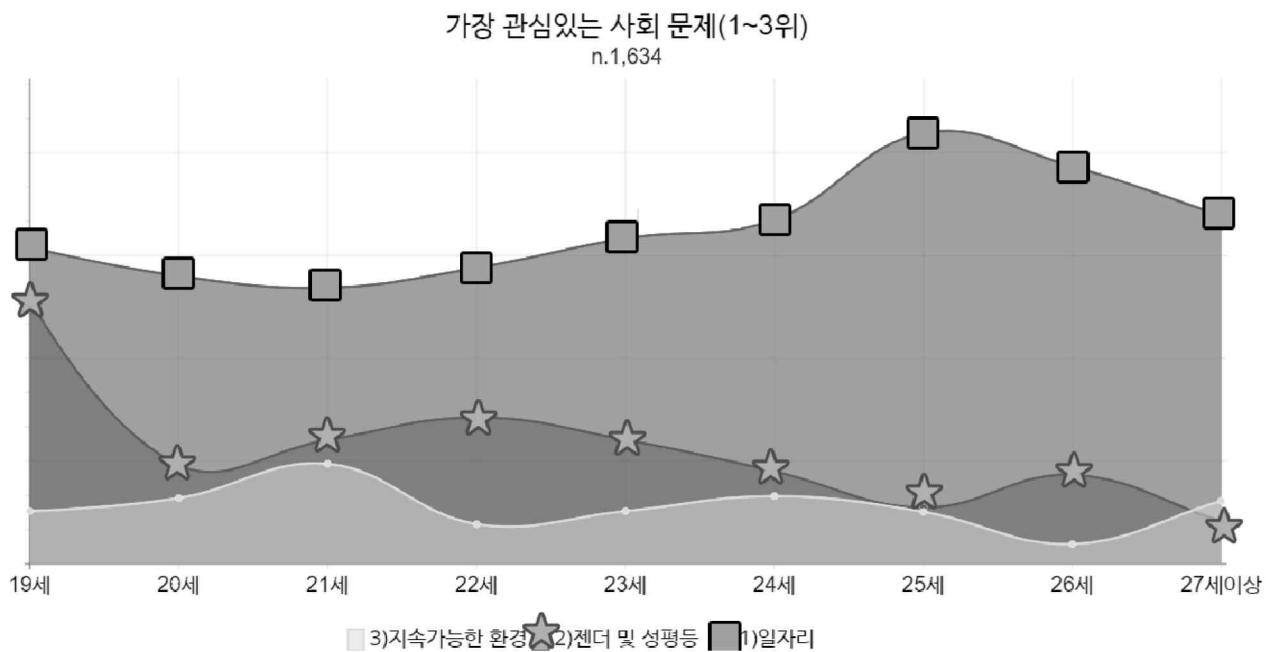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는 일자리 문제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 질문에 대해 절반 정도는 일자리 문제(47.2%)가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젠더 및 성평등(15.9%) 환경문제(9.1%), 주거문제(6.6%), 돌봄 및 복지, 의료문제(6.5%), 국제협력, 평화(5.6%) 순이며,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부분이 가장 낮은 응답(2.3%)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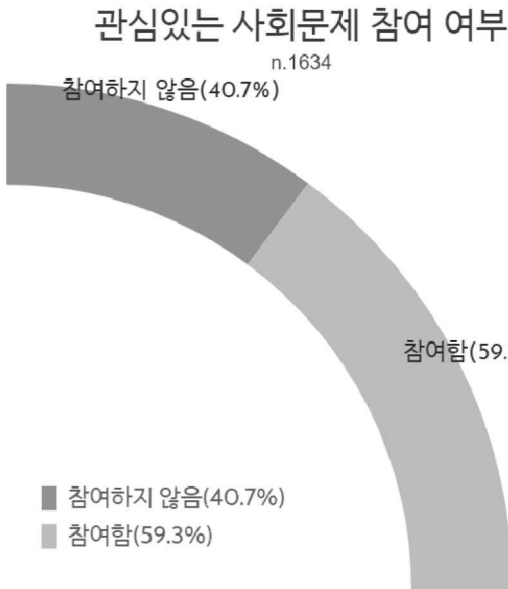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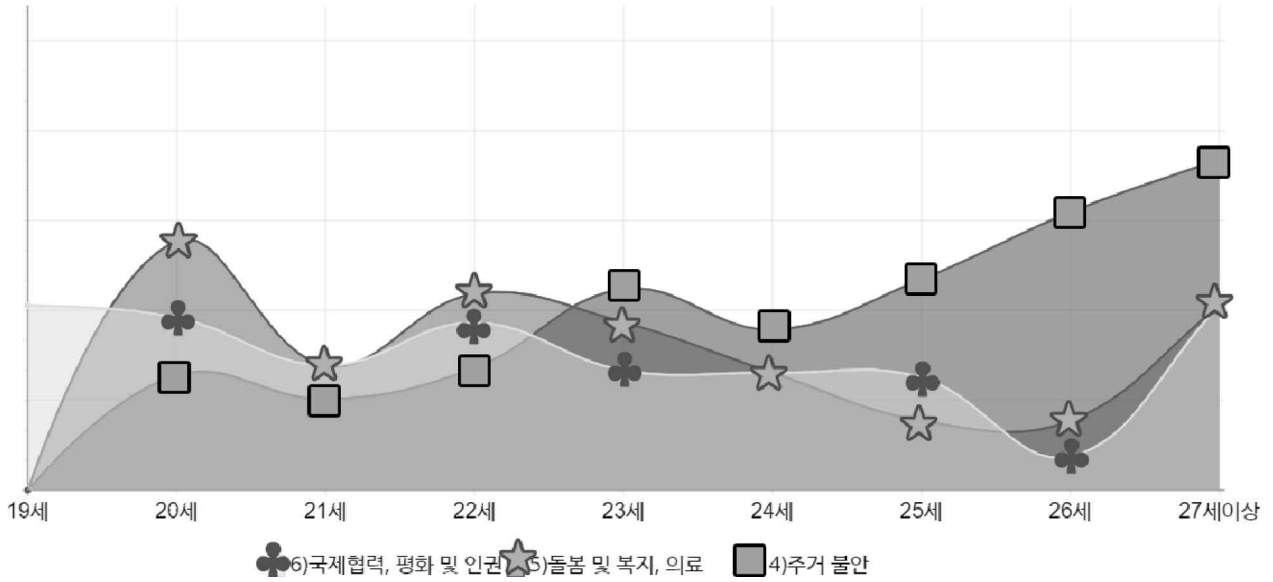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았을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문제와 주거불안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젠더 및 성평등, 복지 문제 등의 비율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관심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의 방법으로는 SNS를 통한 참여(34.1%)와 오프라인 모임 및 동아리 활동(9.9%)순이며, 별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40.7%로 나타났다.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가장 관심있는 사회 문제(4~6위)  
n.1,634



**표.33** 관심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평상시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참여하지 않음	665	40.7%
SNS 참여(포스팅, 좋아요 추천 등)	558	34.1%
오프라인 모임 및 동아리 활동	161	9.9%
소비활동을 통해(공정무역 상품 및 사회문제관련 굿즈)	121	7.4%
기부 및 후원금 지원	82	5.0%
정당활동	26	1.6%
시민단체 활동	16	1.0%
기타	5	0.3%
<b>총합계</b>	<b>1,634</b>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표.34 연령별 관심 사회문제에 대한 교차분석(연령 기준)

연령 사회문제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이상	합계
일자리	6	105	116	111	142	112	107	40	33	772
	46.2%	42.0%	40.3%	43.2%	47.5%	50.2%	62.9%	58.0%	50.8%	47.2%
젠더 및 성평등	5	36	52	55	54	30	14	9	4	259
	38.5%	14.4%	18.1%	21.4%	18.1%	13.5%	8.2%	13.0%	6.2%	15.9%
지속가능한 환경	1	24	42	15	23	22	13	2	6	148
	7.7%	9.6%	14.6%	5.8%	7.7%	9.9%	7.6%	2.9%	9.2%	9.1%
주거 불안		12	11	13	25	15	15	8	9	108
	0.0%	4.8%	3.8%	5.1%	8.4%	6.7%	8.8%	11.6%	13.8%	6.6%
돌봄 및 복지/의료		26	15	21	21	11	5	2	5	106
	0.0%	10.4%	5.2%	8.2%	7.0%	4.9%	2.9%	2.9%	7.7%	6.5%
국제협력, 평화/인권	1	18	15	18	15	11	8	1	5	92
	7.7%	7.2%	5.2%	7.0%	5.0%	4.9%	4.7%	1.4%	7.7%	5.6%
관심없음		13	14	8	7	8	4	1	1	56
	0.0%	5.2%	4.9%	3.1%	2.3%	3.6%	2.4%	1.4%	1.5%	3.4%
재난·안전		9	7	12	4	2	3	3	1	41
	0.0%	3.6%	2.4%	4.7%	1.3%	0.9%	1.8%	4.3%	1.5%	2.5%
먹거리 및 농업문제		6	11	4	5	8	1	2	1	38
	0.0%	2.4%	3.8%	1.6%	1.7%	3.6%	0.6%	2.9%	1.5%	2.3%
기타		1	5		3	4		1	0	14
	0.0%	0.4%	1.7%	0.0%	1.0%	1.8%	0.0%	1.4%	0.0%	0.9%
총합계	13	250	288	257	299	223	170	69	65	1,634
	0.8%	15.3%	17.6%	15.7%	18.3%	13.6%	10.4%	4.2%	4.0%	100%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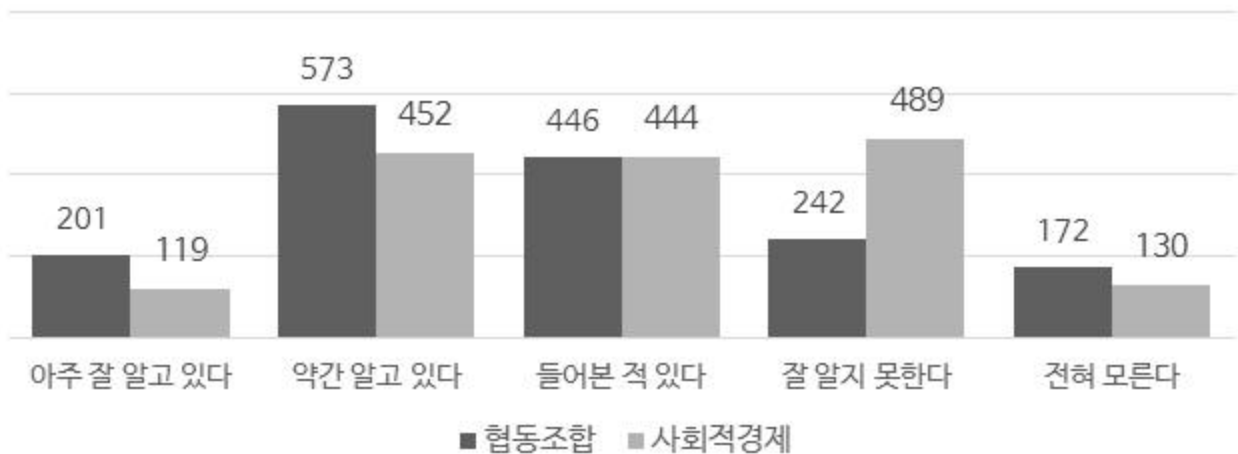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좋지만 잘 알고 있지는 못함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정도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47.4%로 들어본 적이 있다(27.3%)는 경우를 포함하면 과반 이상이 협동조합이란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적 경제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지 정도를 보이며 알고 있는 비율이 35.0%로 협동조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알지 못하는 응답의 비율이 협동조합은 25.3% 반면 사회적 경제는 37.9%로 나타났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생각의 응답은 둘 다 동의의 비율이 협동조합은 80.9%, 사회적 경제는 73.7%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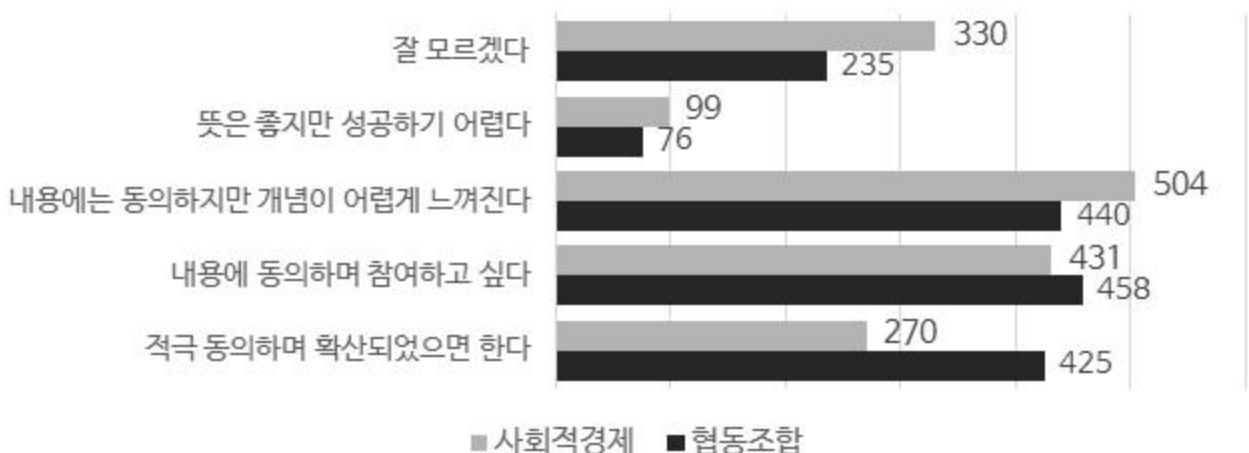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인지 정도

n.1,634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동의 정도

n.1,634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표.35** 귀하께서는 협동조합을 알고 계신가요?

항목	응답수	비율
아주 잘 알고 있다	201	12.3%
약간 알고 있다	573	35.1%
들어본 적 있다	446	27.3%
잘 알지 못한다	242	14.8%
전혀 모른다	172	10.5%
<b>총합계</b>	<b>1,634</b>	

**표.36** 귀하께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항목	응답수	비율
아주 잘 알고 있다	119	7.3%
약간 알고 있다	452	27.7%
들어본 적 있다	444	27.2%
잘 알지 못한다	489	29.9%
전혀 모른다	130	8.0%
잘 알지 못함	278	17.0%
<b>총합계</b>	<b>1,634</b>	

**표.37** 귀하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목	응답수	비율
적극 동의하며 확산되었으면 한다	425	26.0%
내용에 동의하며 참여하고 싶다	458	28.0%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개념이 어렵게 느껴진다	440	26.9%
뜻은 좋지만 성공하기 어렵다	76	4.7%
잘 모르겠다	235	14.4%
<b>총합계</b>	<b>1,634</b>	

**표.38** 귀하께서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목	응답수	비율
적극 동의하며 확산되었으면 한다	270	16.5%
내용에 동의하며 참여하고 싶다	431	26.4%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개념이 어렵게 느껴진다	504	30.8%
뜻은 좋지만 성공하기 어렵다	99	6.1%
잘 모르겠다	330	20.2%
<b>총합계</b>	<b>1,634</b>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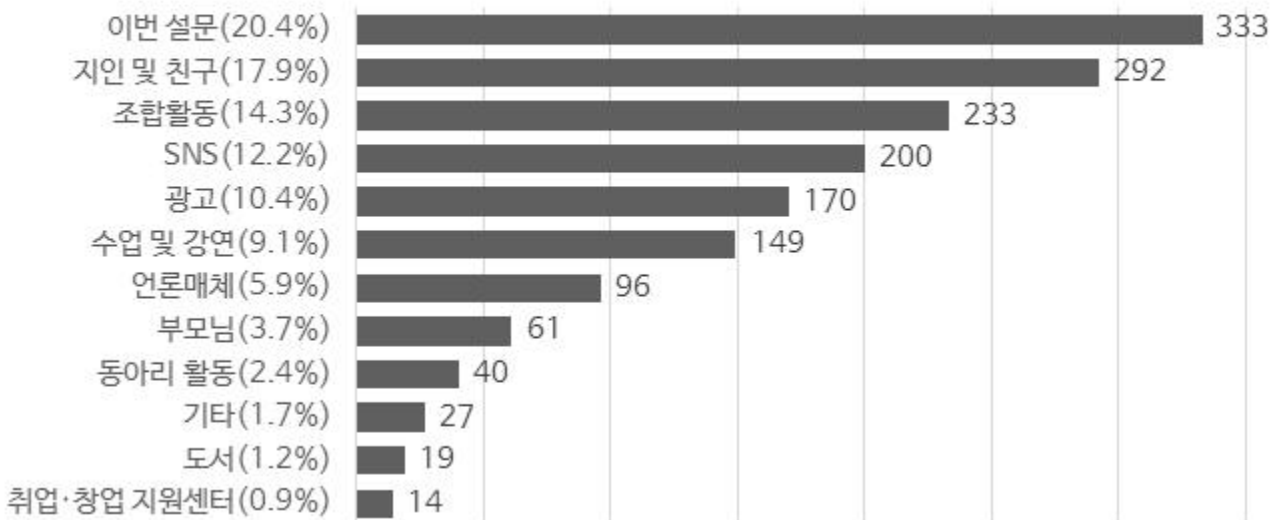
### #협동조합은 지인과 조합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는 수업과 강연으로 확산

협동조합을 알게된 경로에 대한 질문에 이번 설문(20.4%), 지인 및 친구(17.9%), 조합활동(14.3%), SNS(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아리 활동이나 부모님으로부터의 정보 전달 등 다양한 경로로 협동조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경제의 경우 수업 및 강연(39.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언론매체(20.7%), SNS(15.0%) 지인 및 친구(6.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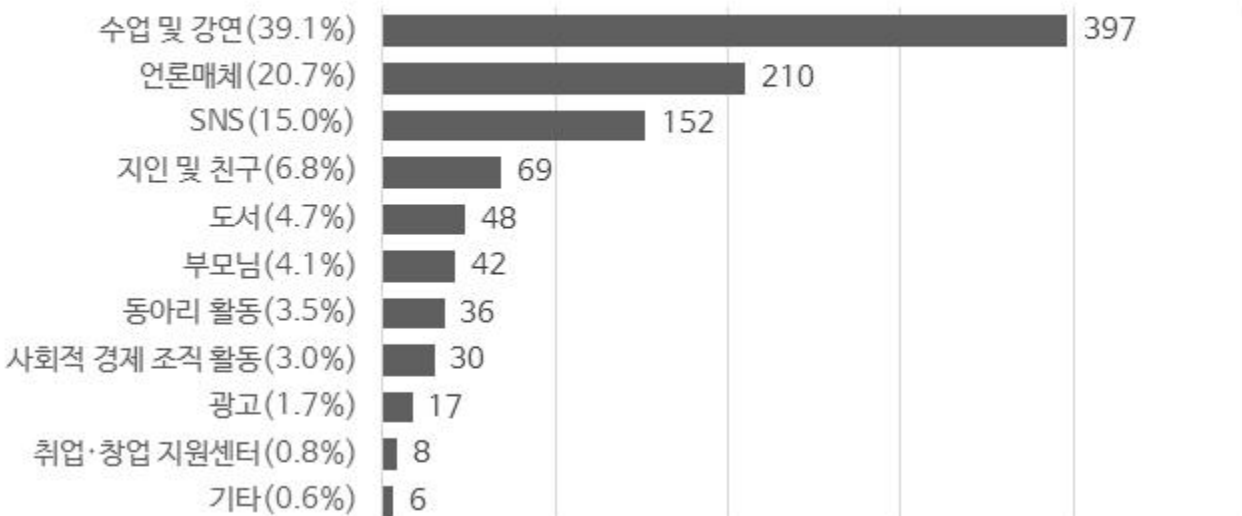
### 협동조합 인지 경로

n.1,634



### 사회적경제 인지 경로

n.1,634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표.39** 어떤 경로를 통해  
협동조합을 알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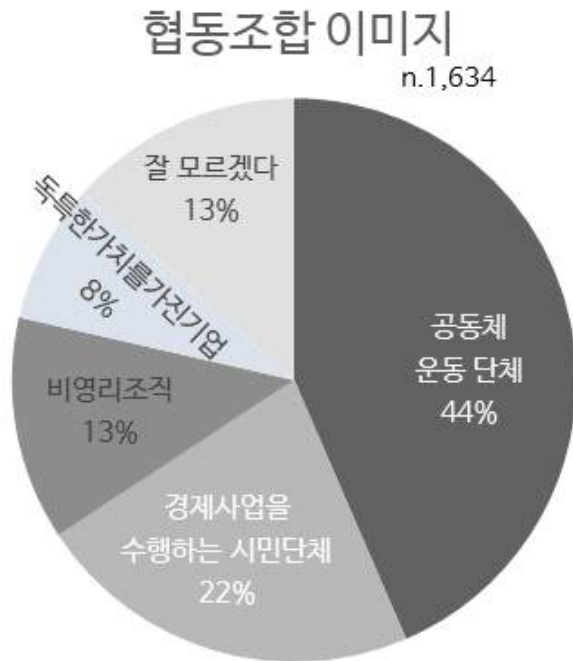
항목	응답수	비율
이번 설문	333	20.4%
지인 및 친구	292	17.9%
조합활동	233	14.3%
SNS	200	12.2%
광고	170	10.4%
수업 및 강연	149	9.1%
언론매체	96	5.9%
부모님	61	3.7%
동아리 활동	40	2.4%
기타	27	1.7%
도서	19	1.2%
취업·창업 지원센터	14	0.9%
<b>총합계</b>	<b>1,634</b>	

**표.40**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었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수업 및 강연	397	39.1%
언론매체	210	20.7%
SNS	152	15.0%
지인 및 친구	69	6.8%
도서	48	4.7%
부모님	42	4.1%
동아리 활동	36	3.5%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	30	3.0%
광고	17	1.7%
취업·창업 지원센터	8	0.8%
기타	6	0.6%
<b>총합계</b>	<b>1,015</b>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협동조합의 이미지는 공동체 운동 단체로, 대학생협 외 타 협동조합은 잘 몰라



협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묻은 질문에는 공동체 운동 단체(43.5%)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제사업을 하는 시민단체(22.2%), 비영리조직(12.9%), 독특한 가치를 가진 기업(8.0%) 순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학생협이라 응답한 비율이 81.6%로 가장 많았고, 한 살림이나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이 4.3%, 금융협동조합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학생협의 경우 학내에 노출 빈도가 높아 인지도가 있었으나, 타 협동조합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알고있는 협동조합 종류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표.41** 귀하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항목	응답수	비율
공동체 운동 단체	711	43.5%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363	22.2%
비영리조직	210	12.9%
독특한 가치를 가진 기업	131	8.0%
잘 모르겠다	219	13.4%
<b>총합계</b>	<b>1,634</b>	

**표.42** 가장 잘 알고 있거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협동조합은 어디인가요?

항목	응답수	비율
대학생협(구내식당, 매점, 카페 등)	1,334	81.6%
전혀 모른다	100	6.1%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친환경 농산물, 생활재 판매)	70	4.3%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알고 있거나 이용한 협동조합은 없다	66	4.0%
금융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청년저축조합 등)	26	1.6%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치과, 한의원 등)	17	1.0%
주택협동조합	11	0.7%
기타(농협, 사회적협동조합 등)	10	0.6%
<b>총합계</b>	<b>1,634</b>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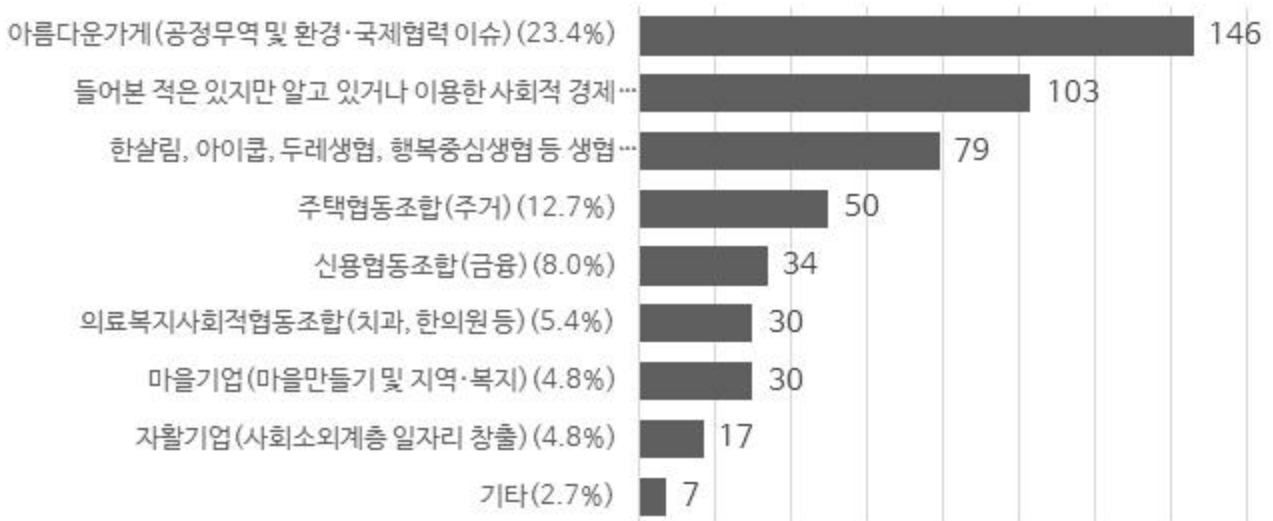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먹거리와 교육에 관심 있어

대학생협을 제외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 알고 있는 조직의 경우 아름다운가게가(23.4%)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생활협동조합(12.7%), 주택협동조합(8.0%), 신용협동조합(5.4%) 순으로 응답이 되었으며, 전혀 모르거나(20.5%)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12.7%)도 낮지 않은 비율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다.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는 먹거리 및 농업 부분(36.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로 교육문화(10.8%), 돌봄복지(9.6%), 주택(9.1%)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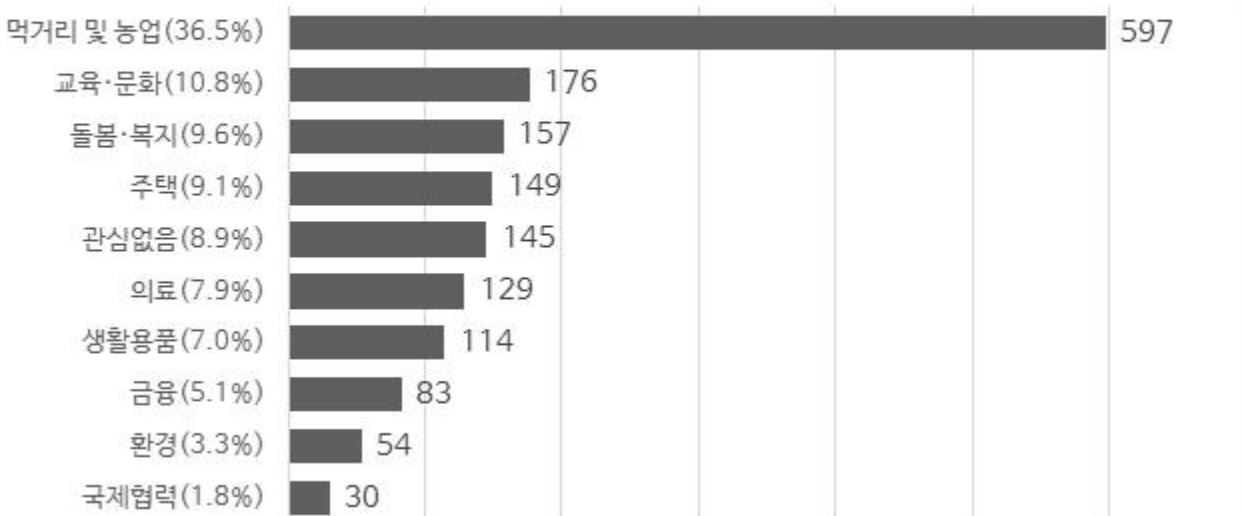
### 알고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 및 조직

n.624



### 관심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

n.1,634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표.43**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및 조직은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대학생협(구내식당, 매점, 카페 등)	-	-	1,010	61.8%
아름다운가게(공정무역 및 환경·국제협력 이슈)	146	23.4%	146	8.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알고 있거나 이용한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은 없다	103	20.5%	103	6.3%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생협 (친환경농산물, 생활재 판매)	79	16.5%	79	4.8%
주택협동조합(주거)	50	12.7%	50	3.1%
신용협동조합(금융)	34	8.0%	34	2.1%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치과, 한의원 등)	30	5.4%	30	1.8%
마을기업(마을만들기 및 지역·복지)	30	4.8%	30	1.8%
자활기업(사회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17	4.8%	17	1.0%
기타	7	2.7%	7	0.4%
전혀 모른다	128	1.1%	128	7.8%
<b>총합계</b>	<b>624</b>		<b>1,634</b>	

**표.44** 귀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먹거리 및 농업	597	36.5%
교육·문화	176	10.8%
돌봄·복지	157	9.6%
주택	149	9.1%
관심없음	145	8.9%
의료	129	7.9%
생활용품	114	7.0%
금융	83	5.1%
환경	54	3.3%
국제협력	30	1.8%
<b>총합계</b>	<b>1,634</b>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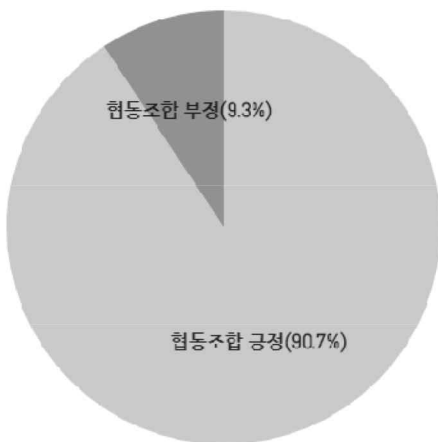
### #대학생협을 경험한 경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 높아

대학생협에서 활동가로 활동 하고 있거나 임원, 학생위원, 조합원 등 대학생협을 인지하고,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엔 상대적으로 대학생협을 모르는 응답자 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경험자가 미경험자 보다 긍정응답이 24.5% 많게 응답되었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경험자의 긍정 응답이 미경험자 보다 13.3% 높게 응답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인식(대학생협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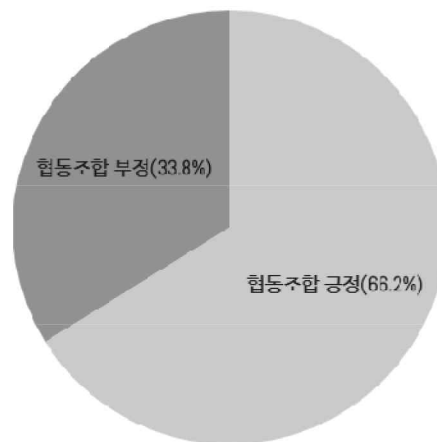
n.987



■ 협동조합 긍정(90.7%) ■ 협동조합 부정(9.3%)

협동조합 인식(대학생협 미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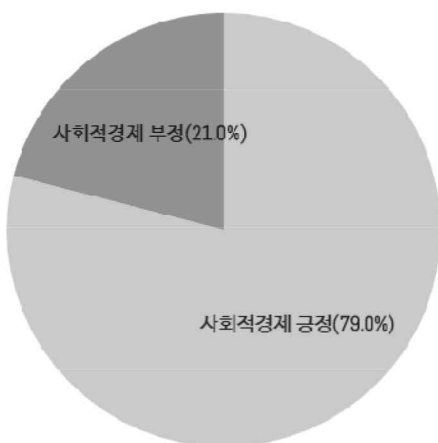
n.987



■ 협동조합 긍정(66.2%) ■ 협동조합 부정(33.8%)

사회적경제 인식(대학생협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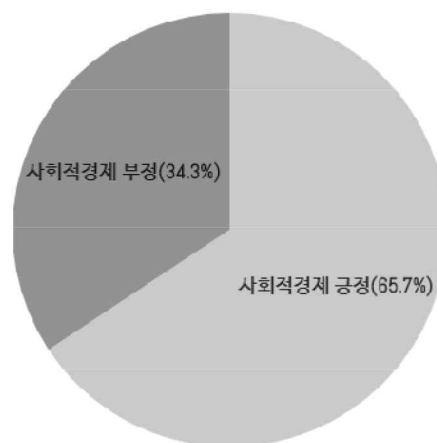
n.987



■ 사회적경제 긍정(79.0%) ■ 사회적경제 부정(21.0%)

사회적경제 인식(대학생협 미경험자)

n.647



■ 사회적경제 긍정(65.7%) ■ 사회적경제 부정(34.3%)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관련 】

**표.45** 대학생협 경험 그룹  
협동조합 긍정/부정 인식 교차비교  
(경험 기준)

	경험	미경험	총합계
협동조합 긍정	895	428	<b>1,323</b>
	90.7%	66.2%	<b>81.0%</b>
협동조합 부정	92	219	<b>311</b>
	9.3%	33.8%	<b>19.0%</b>
<b>총합계</b>	<b>987</b>	<b>647</b>	<b>1,634</b>

**표.46** 대학생협 경험 그룹  
사회적 경제 긍정/부정 인식 교차비교  
(경험 기준)

	경험	미경험	총합계
사회적 경제 긍정	780	425	<b>1205</b>
	79.0%	65.7%	<b>73.7%</b>
사회적 경제 부정	207	222	<b>429</b>
	21.0%	34.3%	<b>26.3%</b>
<b>총합계</b>	<b>987</b>	<b>647</b>	<b>1634</b>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

## 경제적 가치 관련

## 【 경제적 가치 관련 】

### #안정적이며 유연한 근로 형태를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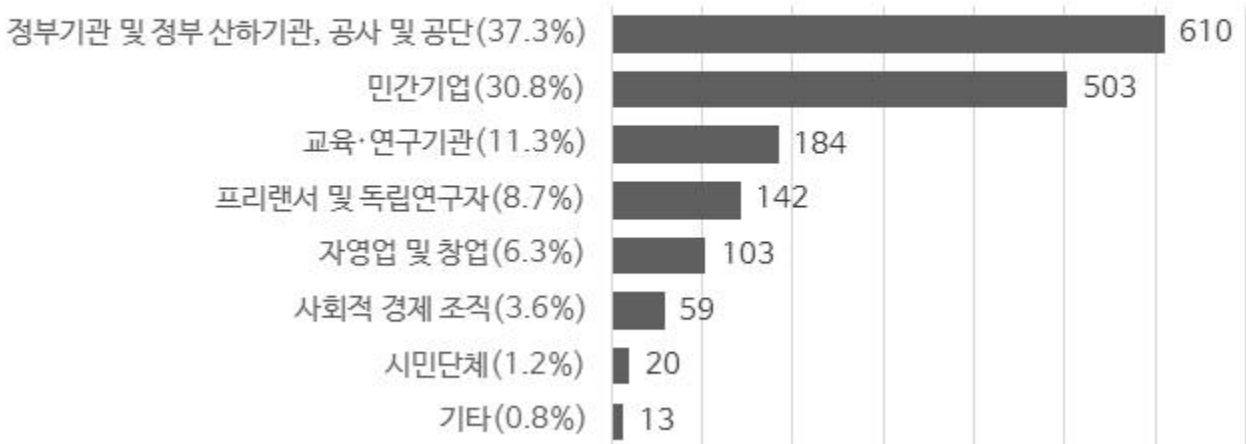
응답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의 형태는 정부기관 및 공사, 공단으로 (37.3%) 민간기업(30.8%)보다는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형태는 소속되어 있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53.7%)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에 대한 니즈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동시간은 현행과 같은 8시간이 57.8%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6시간도 35.1%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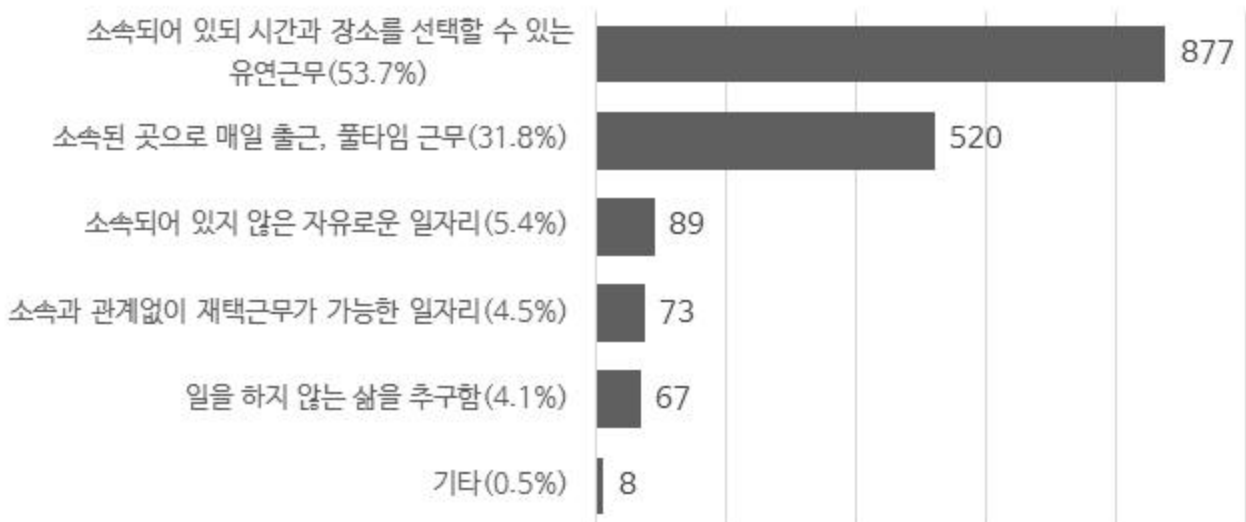
### 선호하는 근로 조직 형태

n.1,634



### 선호하는 근로 형태

n.1,634



## 【 경제적 가치 관련 】

**표.47** 어떤 형태의 조직에서 가장 일하고 싶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공사 및 공단	610	37.3%
민간기업(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등)	503	30.8%
교육·연구기관	184	11.3%
프리랜서 및 독립연구자	142	8.7%
자영업 및 창업	103	6.3%
사회적 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59	3.6%
시민단체	20	1.2%
기타	13	0.8%
<b>총합계</b>	<b>1,634</b>	

**표.48** 어떤 형태로 일하고 싶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소속된 곳으로 매일 출근, 풀타임 근무	520	31.8%
소속되어 있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	877	53.7%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일자리	89	5.4%
소속과 관계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73	4.5%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추구함	67	4.1%
기타	8	0.5%
<b>총합계</b>	<b>1,634</b>	

**표.49** 하루에 적절한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4시간 이하	35	2.1%
6시간	573	35.1%
8시간	945	57.8%
8시간 이상	62	3.8%
기타	19	1.2%
<b>총합계</b>	<b>1,634</b>	

## 【 경제적 가치 관련 】

### #근로환경에서도 중요한 워라벨과 안정적인 소득

응답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의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워라벨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67.7%) 다음으로는 사회 공헌에 적극적인 조직이 10.3%를 차지하였고, 인권문제, 환경, 성평등, 영리추구의 조직들은 10% 미만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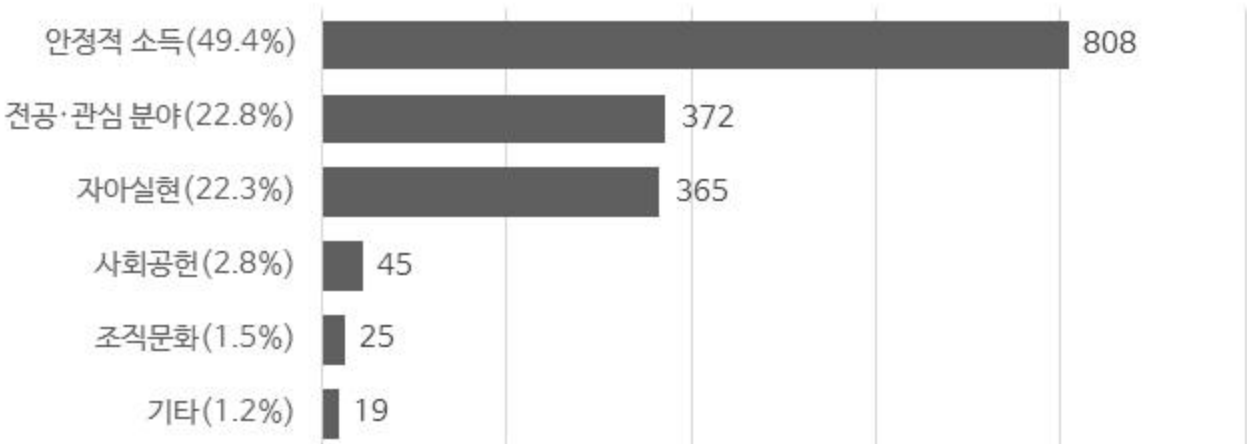
진로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안정적 소득 추구가 49.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공과 자아실현이 각각 22.8%, 22.3%로 응답을 해 주었다.

가장 기피하고 싶은 근로 조건으로 또한 낮은 급여(33.4%)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직된 조직문화와 업무강도 등이 뒤를 이었다.

###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지 n.1,634



### 진로,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 n.1,634



## 【 경제적 가치 관련 】

### 진로, 직업 선택시 기피 요인

n.1,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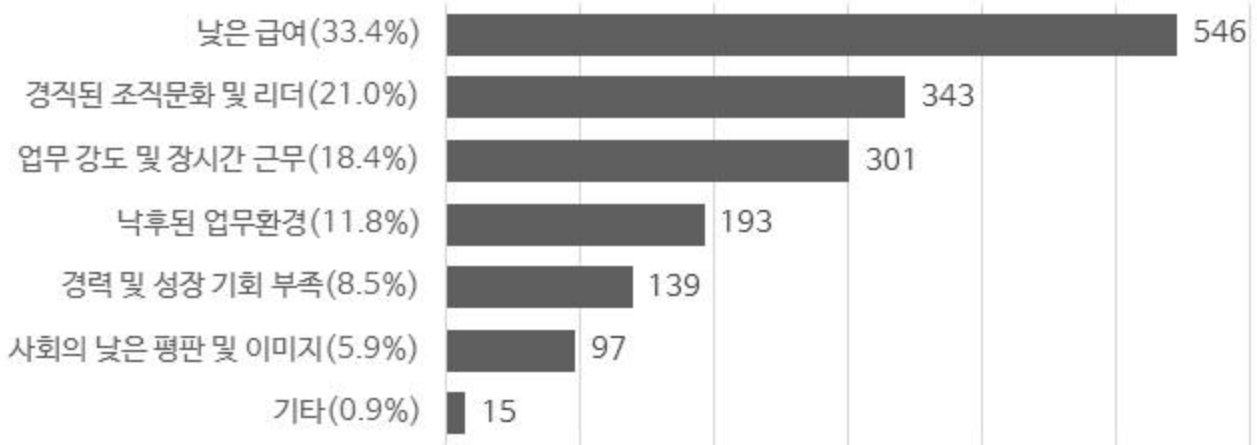


표.50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가장 일하고 싶습니다?

항목	응답수	비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직	1,107	67.7%
사회 공헌에 적극적인 조직	169	10.3%
인권·환경 등 사회적 문제에 관심 많은 조직	133	8.1%
성평등이 보장된 조직	125	7.6%
영리 추구가 목적인 조직	86	5.3%
기타	14	0.9%
<b>총합계</b>	<b>1,634</b>	

표.51 진로·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항목	응답수	비율
안정적 소득	808	49.4%
전공·관심 분야	372	22.8%
자아실현	365	22.3%
사회공헌	45	2.8%
조직문화	25	1.5%
기타	19	1.2%
<b>총합계</b>	<b>1,634</b>	

표.52 진로·직업 선택 시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낮은 급여	546	33.4%
경직된 조직문화 및 리더	343	21.0%
업무 강도 및 장시간 근무	301	18.4%
낙후된 업무환경	193	11.8%
경력 및 성장 기회 부족	139	8.5%
사회의 낮은 평판 및 이미지	97	5.9%
기타	15	0.9%
<b>총합계</b>	<b>1,634</b>	

## 【 경제적 가치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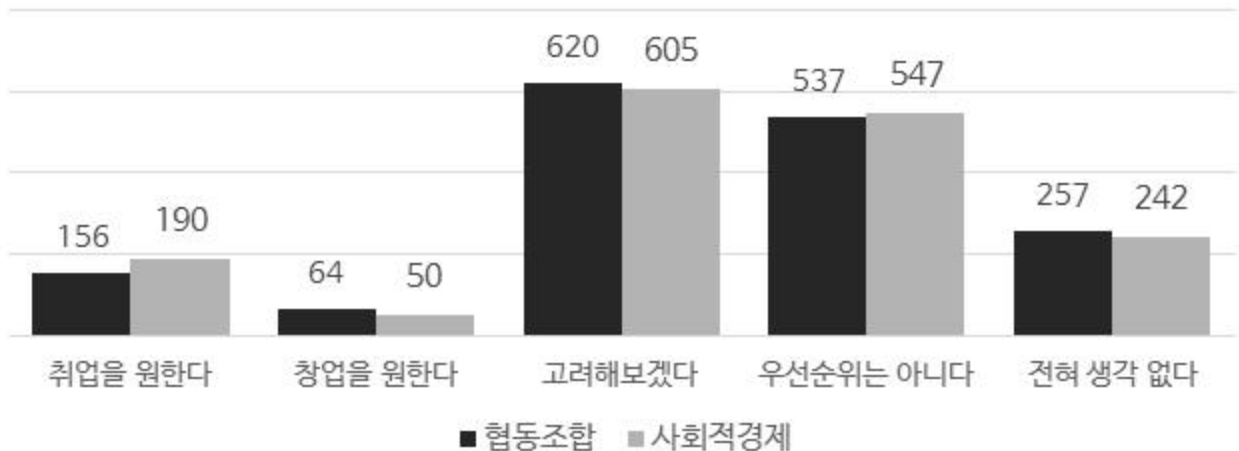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취창업은 어려운 고민

응답자들에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취업 활동에 대한 의견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취업을 반영하기 보다는 고려하는 부분이 37%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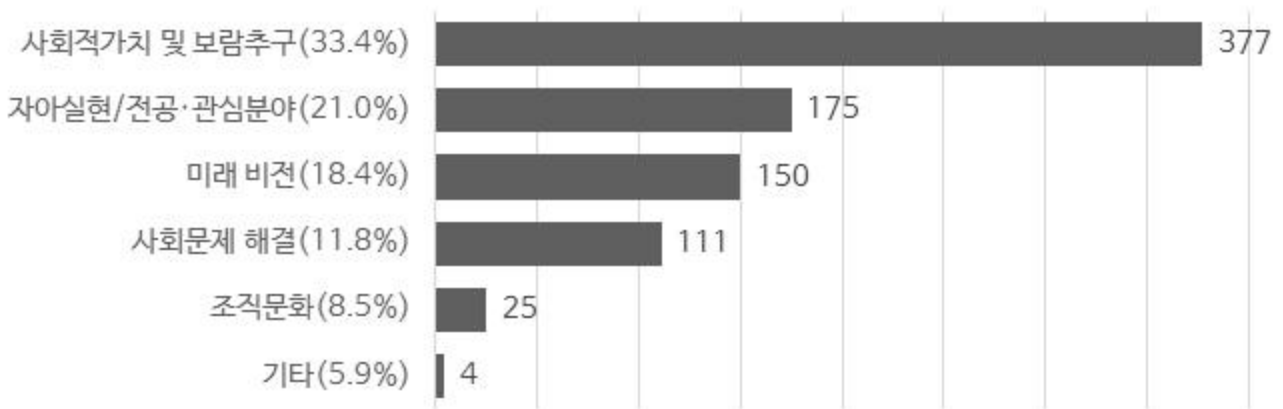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 영역의 취업 장점으로는 가치 추구하고 보람이 23.1%로 1위를, 그 뒤를 이어 자아 실현이나 전공, 관심사항이 10.7%가 나왔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의 두 축은 취업정보 부족(18.8%)과 낮은 급여(11.8%)의 순으로 뒤를 이어 불안정한 미래가 나오는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로 진로, 취업 의향 여부 n.1,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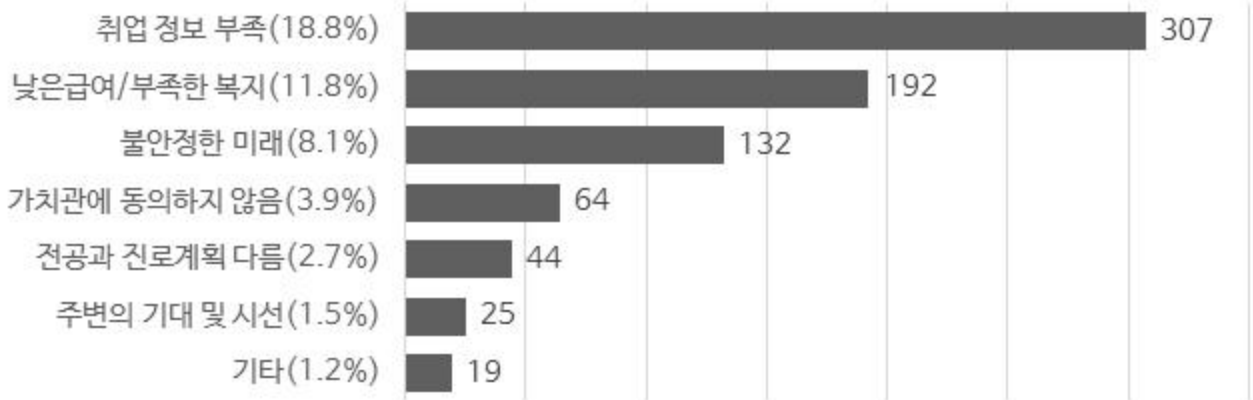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분야 진로, 취업 긍정 이유 n.1,634



## 【 경제적 가치 관련 】

### 사회적경제 분야 진로, 취업 부정 이유

n.1,634



**표.53** 취업 또는 설립(창업) 등 협동조합으로 취업 및 진로를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취업을 원한다	156	9.5%
창업을 원한다	64	3.9%
고려해보겠다	620	37.9%
우선순위는 아니다	537	32.9%
전혀 생각 없다	257	15.7%
<b>총합계</b>	<b>1,634</b>	

**표.54** 취업 또는 설립(창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로 취업 및 진로를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취업을 원한다	190	11.6%
창업을 원한다	50	3.1%
고려해보겠다	605	37.0%
우선순위는 아니다	547	33.5%
전혀 생각 없다	242	14.8%
<b>총합계</b>	<b>1,634</b>	

**표.55** 사회적 경제 분야로 진로·취업에 긍정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사회적가치 및 보람추구	377	23.1%
자아실현/전공·관심분야	175	10.7%
미래 비전	150	9.2%
사회문제 해결	111	6.8%
조직문화	25	1.5%
기타	4	0.2%
<b>총합계</b>	<b>1,634</b>	

**표.56** 사회적 경제 분야로 진로·취업에 부정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취업 정보 부족	307	18.8%
낮은급여/부족한 복지	192	11.8%
불안정한 미래	132	8.1%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음	64	3.9%
전공과 진로계획 다름	44	2.7%
주변의 기대 및 시선	25	1.5%
기타	19	1.2%
<b>총합계</b>	<b>1,634</b>	





“ 대학생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

## 설문 문항

## 【 설문 문항 】

본 설문조사는 한살림 모심과살림연구소와 한국대학생협연합회에서 청년의 생활과 협동운동·사회적 경제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총 50문항으로 작성에는 5분~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이 연구와 사회적 경제 영역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통계법 3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진행문의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02-324-6766)

#(사)모심과살림연구소

(☎02-6931-3608)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Q2. 귀하의 태어난 년도를 입력해주세요(숫자만 입력).

Q3. 귀하의 소속 대학은 어디입니까?

## 【 설문 문항 】

### Part. 1/5 - 식생활·주거·경제

다음은 청년 식생활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질문과 보기를 잘 읽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Q5. 귀하는 하루 평균 몇 끼의 식사를 합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이상 ④ 불규칙적

Q6. 일주일 중에 혼자 식사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없음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⑤ 항상 같이 먹음

Q7. 외식이나 배달음식, 편의점 음식을 평균적으로 1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 ① 먹지 않음 ② 1~2회 ③ 3~4회 ④ 5~7회 ⑤ 거의 매끼

Q8.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직접 요리 ② 즉석식품 및 간편식(즉석밥, 도시락, 3분요리 등) ③ 패스트푸드  
④ 배달음식 ⑤ 매장 및 구내식당 방문 ⑥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9. 식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가격 ② 맛 ③ 장소 ④ 편의성(이동 및 조리시간) ⑤ 건강 ⑥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10.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근처 슈퍼마켓 ② 대형마트 ③ 시장 ④ 편의점 ⑤ 인터넷  
⑥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 ⑦ 생협 외 친환경 매장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11.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식료품은 무엇입니까?

- ①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야채 및 고기, 유제품, 계란 등 ② 참치캔 등 유통기한 긴 식료품 ③ 즉석  
식품 및 간편식(즉석밥, 도시락, 3분요리 등) ④ 샐러드 및 과일  
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12. 현재 본인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가족과 함께 거주 ② 기숙사 및 하숙 ③ 고시원 ④ 청년임대주택  
⑤ 혼자서 자취 ⑥ 형제자매, 친구 등과 함께 자취(쉐어하우스 포함)  
⑦ 배우자와 거주(자녀포함) ⑦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설문 문항 】

Q13. 월평균 주거비 지출은 얼마정도 입니까?(관리비 포함)

- ① 20만원 미만 ② 20만원~40만원 미만 ③ 40만원~60만원 미만 ④ 60만원~80만원 미만  
⑤ 80만원 이상 ⑥ 없음 ⑦ 기타(구체적인 금액 명시)

Q14. 현재 주거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아주 심하다 ②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견딜만하다 ⑤ 전혀 없다

Q15.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생활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혼자만의 시간 확보(1인가구) ② 가족중심(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거주)  
③ 소유보다 공유 (쉐어하우스) ④ 소통하는 삶(공동체주택)  
⑤ 독립과 돌봄(반려동물과 함께 자취) ⑥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16. 월별 생활비 지출에 있어 본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 ① 주거비 ② 식비 ③ 통신비 ④ 교통비 ⑤ 문화·여가활동비 ⑥ 교육비  
⑦ 대출상환비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17. 주거비를 제외한 월평균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는 얼마입니까?

- ① 30만원 미만 ② 30만원~40만원 미만 ③ 40만원~50만원 미만 ④ 50만원~60만원 미만  
⑤ 60만원~70만원 미만 ⑥ 70만원 이상

Q18.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20만원 미만 ② 20만원~40만원 미만 ③ 40만원~60만원 미만 ④ 60만원~80만원 미만 ⑤ 80  
만원~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 ⑦ 소득활동을 하지 않음

Q19.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월평균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지원없음 ② 10만원 미만 ③ 10만원~30만원 미만 ④ 30만원~50만원 미만  
⑤ 50만원~70만원 미만 ⑥ 70만원~100만원 미만 ⑦ 100만원 이상

Q20. 월평균 저축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10만원 미만 ③ 10만원~20만원 미만 ④ 20만원~40만원 미만  
⑤ 40만원~60만원 미만 ⑥ 60만원 이상 ⑦ 저축할 여유가 없음 ⑧ 저축을 하지 않음

Q21. 현재 본인 명의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규모(금액)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500만원 미만 ④ 500~700만원 미만 ⑤  
700~1000만원 미만 ⑥ 1000만원 이상 ⑦ 부채없음

## 【 설문 문항 】

Q22. 개인 명의의 부채가 있다면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등록금 마련 ② 생활비 마련 ③ 취업준비 ④ 문화 및 여가활동비 마련 ⑤ 주거비 마련  
⑥ 부채 없음 ⑦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Part. 2/5 - 대학생활협동조합

아래의 대학생협에 관한 설명을 읽고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협이란?**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이 학내 합리적인 소비문화와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법인입니다. 대학생협에서는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며,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그대로 구성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Q23. 귀하는 대학생협을 알고 계신가요?

- ① 들어본 적 있으며 정확히 아는 편이다 ② 들어본 적 있으며, 무엇인지 대략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이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Q24. 귀하는 대학생협이 학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 ② 대체로 공감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공감하지 않음 ⑤ 전혀 공감하지 않음  
⑥ 잘 알지 못함

Q25. 귀하는 현재 대학생협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은 대학생협에 가입한 사람을 칭합니다.)

- ① 조합원은 아니지만 생협 매장(매점, 식당, 카페 등) 및 사업 이용 ② 일반조합원  
③ 학생활동가(학생위원회, 대의원, 이사 및 감사 등) ④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⑤ 잘 알지 못함

Q26.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이전질문 에서 ②~③에 답한 경우)

- ①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② 대학생협 운영원리와 가치에 공감 ③ 학내복지 문제에 관심  
④ 협동조합 및 대안경제에 대한 관심 ⑤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⑥ 지인의 추천  
⑦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설문 문항 】

Q27. 학생으로서 본인이 대학운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Q28. 현재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대학시설의 상업화 ② 학비부담 ③ 수업과 연구의 질 ④ 기숙사, 편의매장 등 복지시설 부족  
⑤ 학내 시설의 노후화 ⑥ 취업 및 진로지원 미흡 ⑦ 학내물가 상승  
⑧ 잘 알지 못함 ⑨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Part. 3/5 - 청년과 협동조합

아래의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을 읽고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사회·경제·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협동과 인간을 존중하는 이념을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사례로는 한살림, 신용협동조합, 의료생활협 등이 있습니다.

Q29. 귀하께서는 협동조합을 알고 계신가요?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약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잘 알지 못한다  
⑤ 전혀 모른다

Q30. 어떤 경로를 통해 협동조합을 알게 되었나요?

- ① 수업 및 강연 ② 부모님 ③ 지인 및 친구 ④ 동아리 활동 ⑤ SNS ⑥ 도서  
⑦ 언론매체 ⑧ 광고 ⑨ 조합활동 ⑩ 취업·창업 지원센터 ⑪ 이번 설문  
⑫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31. 귀하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적극 동의하며 확산되었으면 한다 ② 내용에 동의하며 참여하고 싶다  
③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개념이 어렵게 느껴진다 ④ 뜻은 좋지만 성공하기 어렵다 ⑤ 잘 모르겠다

## 【 설문 문항 】

Q32. 귀하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 ① 독특한 가치를 가진 기업      ②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③ 공동체 운동 단체
- ④ 비영리조직      ⑤ 잘 모르겠다

Q33. 가장 잘 알고 있거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협동조합은 어디인가요?

- ① 대학생협(구내식당, 매점, 카페 등)
- ②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친환경 농산물, 생활재 판매)
- ③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치과, 한의원 등)
- ④ 주택협동조합
- ⑤ 금융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청년저축조합 등)
- ⑥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알고 있거나 이용한 협동조합은 없다
- ⑦ 전혀 모른다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34. 협동조합 실무자로 취업 또는 설립(창업) 등 앞으로 협동조합으로 취업 및 진로를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취업을 원한다      ② 창업을 원한다      ③ 고려해보겠다      ④ 우선순위는 아니다
- ⑤ 전혀 생각 없다

### ▣Part. 4/5 - 노동·가치 인식 변화

*청년들의 노동과 가치 인식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과 보기를 잘 읽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Q35. 진로·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① 자아실현      ② 안정적 소득      ③ 사회공헌      ④ 전공·관심 분야      ⑤ 조직문화
- ⑥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36. 어떤 형태의 조직에서 가장 일하고 싶습니까?

- ① 민간기업(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등)      ②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공사 및 공단
- ③ 교육·연구기관      ④ 시민단체      ⑤ 사회적 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⑥ 프리랜서 및 독립연구자
- ⑦ 자영업 및 창업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설문 문항 】

Q37. 어떤 형태로 일하고 싶습니까?

- ① 소속된 곳으로 매일 출근, 풀타임 근무
- ② 소속되어 있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
- ③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일자리    ④ 소속과 관계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 ⑤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추구함    ⑥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38. 하루에 적절한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4시간 이하    ② 6시간    ③ 8시간    ④ 8시간 이상    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39.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가장 일하고 싶습니까?

- ① 영리 추구가 목적인 조직    ② 사회 공헌에 적극적인 조직
- ③ 인권·환경 등 사회적 문제에 관심 많은 조직    ④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직    ⑤ 성평  
등이 보장된 조직    ⑥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40. 진로·직업 선택 시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경력 및 성장 기회 부족    ② 낮은 급여    ③ 경직된 조직문화 및 리더
- ④ 업무 강도 및 장시간 근무    ⑤ 사회의 낮은 평판 및 이미지    ⑥ 낙후된 업무환경
- ⑦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41. 현재 본인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일자리    ② 주거 불안    ③ 안전한 먹거리 및 농업문제    ④ 지속가능한 환경
- ⑤ 재난·안전    ⑥ 돌봄 및 복지, 의료    ⑦ 국제협력, 평화 및 인권    ⑧ 젠더 및 성평등
- ⑨ 관심없음    ⑩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42. 관심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평상시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오프라인 모임 및 동아리 활동    ② SNS 참여(포스팅, 좋아요 추천 등)
- ③ 소비활동을 통해(공정무역 상품 및 사회문제관련 굿즈)    ④ 정당활동    ⑤ 기부 및 후원금 지원
- ⑥ 시민단체 활동    ⑦ 참여하지 않음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설문 문항 】

### ▣Part. 5/5 - 사회적 경제

다음은 사회적 경제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과 보기를 잘 읽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와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기존 학문이 고려하지 못한 빈곤·사회 불평등·환경문제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사회적 측면을 중시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제조합, 자활사업,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푸드, 소셜벤처, 공정무역, 공유경제 등 다양한 조직과 개념을 포괄합니다.

Q43. 귀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약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잘 알지 못한다  
⑤ 전혀 모른다

Q44.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었습니까? (위 응답 중 ①~③에 답한 경우)

- ① 수업 및 강연    ② 부모님    ③ 지인 및 친구    ④ 동아리 활동    ⑤ SNS    ⑥ 도서    ⑦ 언론매체  
⑧ 광고    ⑨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    ⑩ 취업·창업 지원센터    ⑪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45.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적극 동의하며 확산되었으면 한다    ② 내용에 동의하며 참여하고 싶다  
③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개념이 어렵게 느껴진다    ④ 뜻은 좋지만 성공하기 어렵다    ⑤ 잘 모르겠다

Q46.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및 조직은 무엇입니까?

- ① 대학생협(구내식당, 매점, 카페 등)  
②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생협 (친환경농산물, 생활재 판매)  
③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치과, 한의원 등)  
④ 신용협동조합(금융)  
⑤ 주택협동조합(주거)  
⑥ 아름다운가게(공정무역 및 환경·국제협력 이슈)  
⑦ 마을기업(마을만들기 및 지역·복지)  
⑧ 자활기업(사회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⑨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알고 있거나 이용한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은 없다  
⑩ 전혀 모른다    ⑪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설문 문항 】

Q47. 귀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먹거리 및 농업      ② 의료   ③ 생활용품      ④ 금융   ⑤ 주택   ⑥ 환경   ⑦ 돌봄·복지  
⑧ 교육·문화      ⑨ 국제협력      ⑩ 관심없음

Q48. 귀하께서는 사회적 경제 분야로 진로·취업을 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취업을 원한다 ② 창업을 원한다 ③ 고려해보겠다 ④ 우선순위는 아니다  
⑤ 전혀 생각 없다

Q49. 사회적 경제 분야로 진로·취업에 긍정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적 가치 및 보람 추구      ② 자아실현 및 전공·관심 분야      ③ 미래 비전      ④ 조직문화  
⑤ 사회문제 해결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50. 위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로 진로·취업에 부정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불안정한 미래 ② 낮은 급여 및 부족한 복지      ③ 취업 정보 부족  
④ 주변의 기대 및 시선      ⑤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음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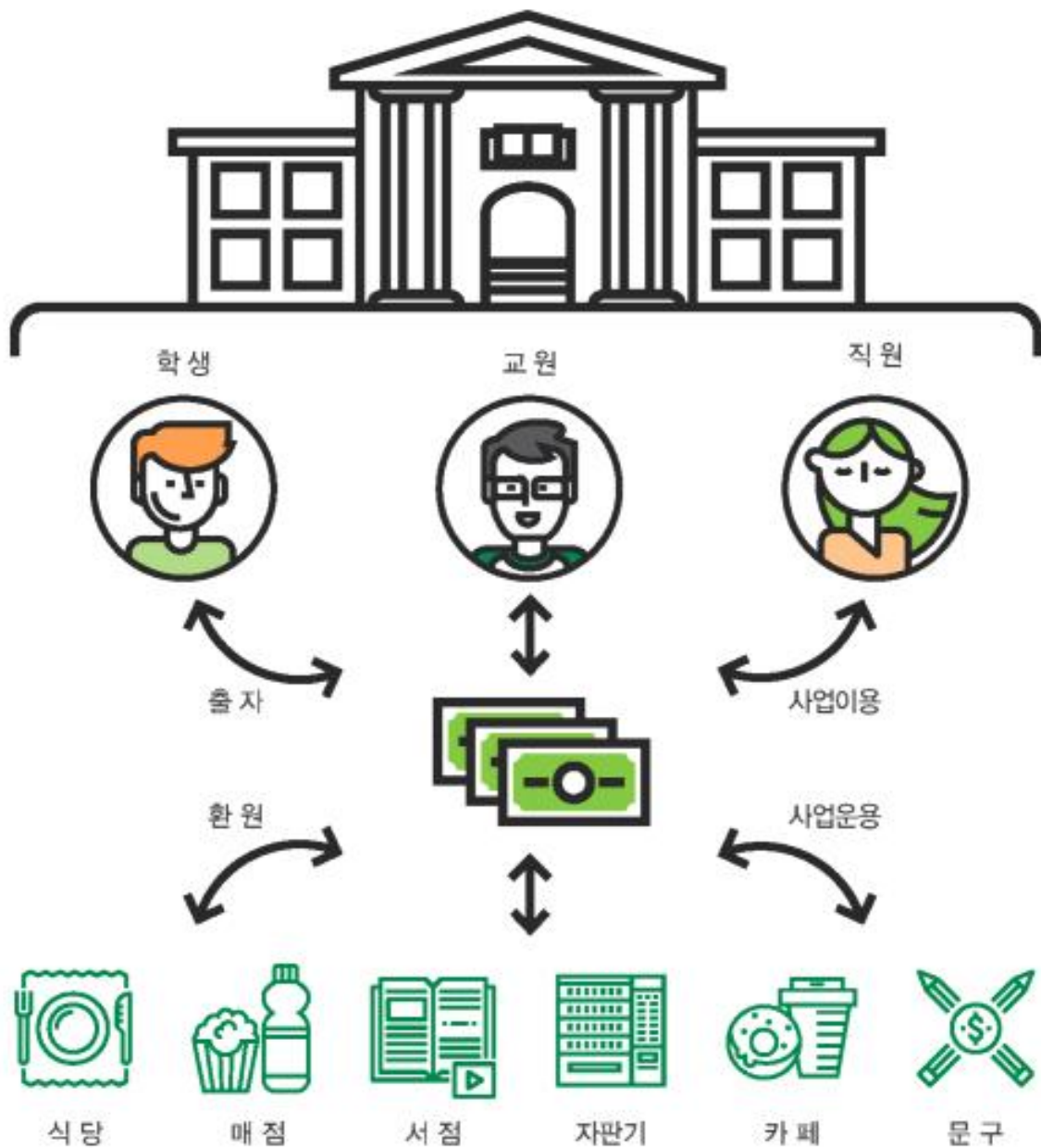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 결과의 결과는 연합회 홈페이지와 모심과살림 연구소 포럼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 대학생협 복지서비스 시스템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출자하여 만든 비영리 특별 법인입니다.  
 조합의 주인은 출자한 구성원들로, 후생복지서비스로 발생한 잉여(수익)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환원됩니다.**



대학생협은 대학안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사업현황



### 대정부사업

여러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와 회원조합들의 힘을 모아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정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지원사업

연합회에서는 공동구매, 공동계약 활동을 통해 매점, 식당, 카페, 문구, 자판기등 회원조합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설립지원사업

대학생협의 활동과 상생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상담', '자료제공', '컨설팅'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류사업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시아, 태평양지역 대학생협 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통해 아시아 지역 12개 나라에 한국의 대학생협운동을 일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사업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조합들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조합원, 임원, 실무자 등) 사업을 지원합니다.



### 홍보 및 출판사업

각종 교육교재 및 자료를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대학생협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 대학생 생활실태조사

2019.04.01.

대학생협연합회

조직교육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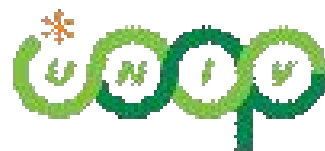
02-324-6766

univcoopkr+edu@gmail.com



# 대학생활협동조합은

협동, 복지, 상생의 가치 아래  
주체적인 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대학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생의 가치를 폭넓게 실현함으로써  
대학구성원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University Cooperatives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2층  
Tel : 02-324-6766 Fax : 02-324-6569  
<http://www.univcoop.or.kr>